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12 | No.171



해외 경제 동향

대외 여건 동향 | 주요국 산업 동향

국내 실물경제

국내 경기 | 고용 | 물가 | 금융·외환 | 수출입

주요 산업별 동향

제조업 | 서비스산업

지역별 동향

개관 | 지역별 동향

산업 포커스

2024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12 | No. 171

차 례

I. 해외 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5
(1) 세계 경제	5
(2) 국제 금융·유가	6
2. 주요국 산업 동향	7
(1) 중국	7
(2) 미국	11
(3) 일본	13
(4) 유로존	14

II. 국내 실물경제

1. 국내 경기	16
2. 고용	18
3. 물가	19
4. 국내 금융·외환	20
5. 수출입	22

III.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23
(1) 총괄	23
(2) 자동차	26
(3) 조선	27
(4) 일반기계	28
(5) 철강	30
(6) 정유	32
(7) 석유화학	33

(8) 섬유	34
(9) 가전	36
(10) 무선통신기기	37
(11) 반도체	38
(12) 디스플레이	40
2. 서비스산업	41
(1) 생산	41
(2) 고용	44
(3) 서비스수지	46

IV. 지역별 동향

1. 개관	48
(1) 생산	48
(2) 고용	49
(3) 수출	51
2. 지역별 동향	52
(1) 수도권	52
(2) 충청권	54
(3) 호남권	56
(4) 대경권	58
(5) 동남권	60
(6) 강원·제주권	62

V. 산업 포커스

1. 2024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64
--------------------------------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12 | No. 171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인철
발행일 2023년 12월 29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146
인쇄처 (주)프리비

I

해외 경제 동향

0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 미국은 10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체감지표들과 선행지수의 동반 하락이 나타나면서 실물경기 여건의 약세를 반영
 -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인플레이가 연준의 목표치(2.0%)를 여전히 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금리 지속 기간에 주목
- 일본은 9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전월과 달리 소폭 증가한 반면에, 유로존은 역내 생산 및 소비가 동반 감소하면서 역내 실물경기 약세를 시사
 - 일본은 3분기 중 내수 부진과 수출 약세 등의 영향으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전기비 -0.7%)을 기록하고, 유로존 역시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마이너스 성장 여파로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0.1%)
- 중국은 지난 10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에, 수출이 5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디플레이 우려 속에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184조 원)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 추진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미국	실질GDP ¹⁾	5.8	1.9	2.2	2.1	5.2				
	산업생산	4.4	3.4	-0.1	0.2	0.5	0.9	0.0	0.1	-0.6
	소매판매	18.2	9.7	1.1	0.1	1.7	0.6	0.7	0.9	-0.1
	무역수지 ²⁾	-841.6	-951.2	-201.8	-203.8	-184.7	-65.0	-58.6	-61.2	-64.3
일본	실질GDP	2.6	1.0	1.2	0.9	-0.7				
	광공업생산	5.8	0.0	-1.8	1.4	-1.2	-1.8	-0.7	0.5	-
	소매판매	2.0	2.6	2.5	0.5	2.5	2.2	0.2	0.4	-
	무역수지 ²⁾	-1,784	-19,966	-5,185	-1,779	-935	-64	-943	72	-
유로	실질GDP	5.9	3.4	0.0	0.2	-0.1				
	산업생산	8.8	2.2	-1.2	-1.2	-1.2	-1.3	0.6	-1.1	-
	소매판매	5.1	0.9	-0.1	0.0	-0.5	-0.1	-0.7	-0.3	-
	무역수지 ²⁾	97.9	-340.5	-7.2	1.5	23.8	3.5	11.2	9.2	-
중국 ³⁾	실질GDP	9.1	3.0	4.5	6.3	4.9				
	산업생산	9.3	3.4	3.2	4.5	4.2	3.7	4.5	4.5	4.6
	소매판매	12.4	-0.8	7.1	11.4	4.2	2.5	4.6	5.5	7.6
	수출(달러화)	29.6	5.6	-1.7	-4.6	-9.6	-14.1	-8.4	-6.1	-6.4

자료: 미국 상무부·연준, 일본 내각부·경제산업성·재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 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2) 국제 금융·유가

□ 12월 초 달러화 약세 및 유가 하락세

- 달러화는 11월 중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도 미 고용·물가지표 약세와 미국 채금리 하락 등으로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12월 초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경계감으로 소폭 강세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3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일
엔/달러	132.86	136.30	139.34	144.31	142.29	145.54	149.37	151.68	148.20	144.95
달러/유로	1.0839	1.1019	1.0689	1.0909	1.0997	1.0843	1.0573	1.0575	1.0888	1.0763
미 국채 (10년만기)	3.47	3.42	3.64	3.84	3.96	4.11	4.57	4.93	4.33	4.23
WTI유	75.7	76.8	68.1	70.6	81.8	83.6	90.8	81.0	76.0	71.2
두바이유	76.8	78.9	72.1	76.1	85.6	87.2	92.9	86.7	84.3	76.1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달러화는 11월 중 엔화 및 유로화 대비 각각 2.3%와 2.9% 하락하고, 12월 초 현재 엔화 대비 2.2% 추가 하락세
- 유가는 11월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미 원유재고 증가와 글로벌 원유 수요 불안,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이견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12월 들어서도 산유국들의 감산 의구심과 중국 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추가 하락
 - WTI유와 두바이유 가격은 11월 중 각각 6.2%와 2.8% 하락하고, 12월 초 현재 기준 6.3%와 9.7% 추가 하락세

02 주요국 산업 동향

(1) 중국

□ 10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4.6%로 증가세 확대

- 10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4.6%로 증가세 소폭 확대
 - 광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2.9%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8월	9월	10월
공업 전체		9.6	3.4	3.6	3.8	4.5	4.5	4.6
섬유	방직	7.5	-2.5	-6.6	-5.0	-2.2	-3.5	-5.3
	화학섬유	9.1	0.5	-1.0	3.9	17.3	12.1	15.5
화학	에틸렌	18.3	1.4	-1.0	3.8	16.8	5.7	5.6
	플라스틱원료	5.8	1.0	1.5	3.7	13.5	7.3	9.6
	플라스틱제품	5.9	-3.2	-4.3	-0.7	6.0	4.0	3.6
철강	선철	-4.3	-4.7	-0.8	2.7	4.8	-3.3	-2.8
	조강	-3.0	-6.5	-2.1	1.3	3.2	-5.6	-1.8
	강재	0.6	-4.6	-0.8	4.4	11.4	5.5	3.0
비철금속		5.4	1.0	4.3	8.0	6.1	7.3	8.2
기계	금속절삭기계	29.2	-7.3	-13.1	-2.9	0.0	12.5	23.3
	소형트랙터	2.2	-17.3	-11.5	24.7	27.3	0.0	-7.7
	대기오염방지설비	15.4	0.7	4.3	50.2	-13.0	35.5	19.5
	발전설비	9.9	9.4	17.3	28.9	32.4	25.6	9.2
자동차		4.8	-2.1	3.4	6.1	4.5	3.4	8.5
조선		8.0	-11.1	-4.5	1.3	19.8	14.1	22.0
전자	세탁기	9.5	-4.1	4.6	20.5	40.9	24.2	14.5
	냉장고	-0.4	-6.2	-3.6	13.3	20.8	13.2	20.3
	에어컨	9.4	1.1	1.8	16.6	5.9	-9.7	-0.5
	컬러TV	-3.6	5.8	6.4	5.1	-5.2	-14.1	-14.8
	컴퓨터	22.0	-4.4	-8.1	-25.7	-1.9	-15.6	-16.8
	반도체	33.3	-6.3	-11.6	-6.1	21.1	13.9	34.5
	휴대폰	7.0	-2.7	-6.2	-3.1	7.0	11.8	1.6
서비스	화물운수	12.4	-2.2	-3.1	6.8	8.3	7.6	11.7
	여객운수	-14.1	-37.2	-37.2	56.3	57.7	64.7	99.1
	통신 ³⁾	27.8	22.7	21.3	17.1	14.8	16.2	16.8
	소매업	11.8	0.1	0.5	6.8	3.7	4.6	6.5
	음식숙박업	18.6	-7.7	-6.3	21.4	12.4	13.8	17.1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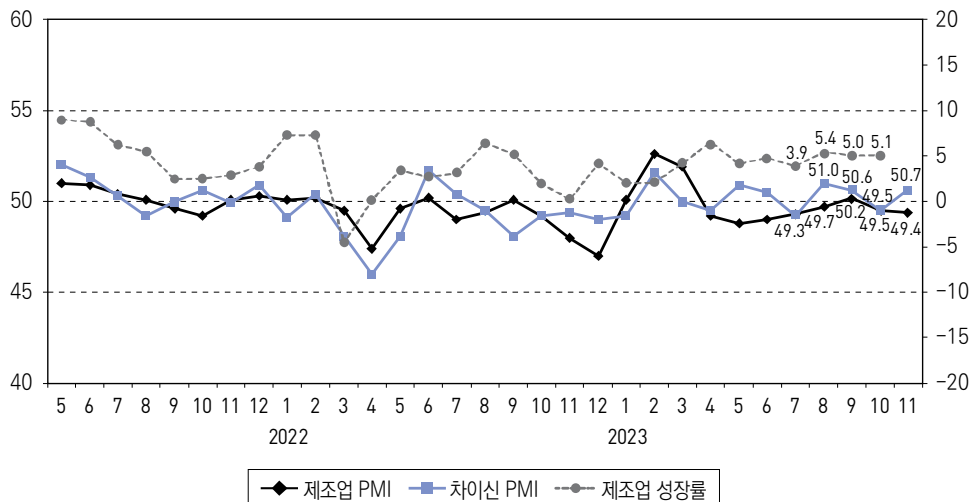
3) 각 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5.1%
- 10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소유제와 상관없이 모두 증가하여 국유기업은 전년동기비 4.9%, 민영기업은 3.9%, 주식제기업은 5.6% 수준
- 10월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전월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 및 조선 등 주요 업종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철강은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은 소비가 개선되며 전반적으로 증가세 확대
 - 섬유업종은 방직(-5.3%)이 감소했으나 화학섬유(15.5%)는 두 자릿수 증가세가 유지
 - 화학업종은 에틸렌(5.6%), 플라스틱원료(9.6%), 플라스틱제품(3.6%)이 모두 증가
 - 철강은 강재(3.0%)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제조업 전방업종의 생산 증가세 둔화와 기저효과로 선철(-2.8%), 조강(-1.8%)은 2개월 연속 감소세
 - 비철금속은 전년동월비 8.2% 증가하며 증가세 유지
 - 기계업종은 금속절삭기계(23.3%)와 대기오염방지설비(19.5%)가 두 자릿수 증가하였고 발전설비(9.2%)는 증가세가 축소되었으며 소형트랙터(-7.7%)는 감소로 전환
 - 자동차는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 확대로 8.5% 증가하면서 증가세 확대
 - 조선업은 선박 수주 확대로 인해 22.0% 증가
 - 전자업종에서 정책적 지원으로 반도체(34.5%)가 대폭 증가했고 냉장고(20.3%)와 세탁기(14.5%)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휴대폰(1.6%)의 증가세도 유지되었으나 컬러TV(-14.8%)와 컴퓨터(-16.8%), 에어컨(-0.5%)은 감소세 지속
- 서비스업은 소비 회복세가 유지되며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작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세 확대
 - 소비 회복세가 유지되며 여행수요 증가로 여객운수(99.1%)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화물운수도 11.7% 증가로 증가세 확대
 - 통신은 16.8% 증가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며 음식숙박업(17.1%)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소매업(6.5%)도 증가세 확대

□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관방치 하락, 민간치는 기준치 상회

- 11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9.4로 2개월 연속 기준치(50) 하회
 -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50.7
 - 신규주문지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9.4
 - 부품재고지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48.0
 - 종업원지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48.1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50.3
- 제조업 PMI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형기업은 기준치(50)를 상회했지만, 중형기업과 소형기업은 기준치(50) 하회
 - 대형기업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50.5
 - 중형기업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48.8
 - 소형기업은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7.8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11월 차이신(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치)는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한 50.7로 1개월 만에 기준치(50) 상회
 - 차이신 PMI는 민간 제조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1.2포인트 상승한 50.7로 기준치(50) 상회
 - 중국의 제조업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소비 증가세는 유지되어 신규 주문이 소폭 증가하여 신규 생산도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수요의 부진이 지속되어 신규 수출 주문지수는 5개월 연속 하락
 - 고용지수는 제조기업들의 비용 압박에 따른 채용 감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감소세는 둔화되었고 소비재 기업의 채용은 증가
 - 물가지수는 일부 화학제품과 산업용 금속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인 생산자물가는 소폭 변동하면서 투입비용이 소폭 상승하였고 기업들이 판매 유지를 위해 판매가격 상승도 제한적
 - 신규 주문이 증가하면서 소비재와 중간재 기업 구매도 소폭 증가하였고 원자재 재고는 감소하고 완제품 재고는 크게 증가, 공급업체 물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운송 효율성이 개선되어 원자재 배송지수 상승
 - 기업들은 국내 수요 증가세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신뢰도가 반등하였으며 대외부문 부진에도 경기부양 정책을 소비 확대, 고용 촉진에 집중하여 내년도 경제 성장 안정화를 기대

(2) 미국

□ 10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7% 감소

- 10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1.7% 감소하며 6개월간 감소세 지속
 -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7로 전월보다 위축
- 플라스틱·고무, 자동차·부품, 기계 등에서 전년동월비와 전월비 생산 감소
 - 플라스틱·고무는 전년동월비와 전월비가 각각 6.9% 및 4.9% 감소
 - 자동차·부품은 전년동월비 6.7% 감소하고 전월비 4.9% 감소
 - 기계는 전년동월비 5.5% 감소하고 전월비 0.4% 감소

- 이 외에도 식품(-3.2%), 가공금속(-2.0%), 제지(-1.0%)에서 부진세 지속

- 컴퓨터·주변기기, 통신기기, 반도체·전자부품에서 전년동월비가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며 제조업 생산을 견인

- 컴퓨터·주변기기는 전년동월비 18.5% 및 전월비 4.9% 증가하며 3개월간 전월비 증가

- 통신기기는 전년동월비 16.6% 및 전월비 5.4% 증가하며 8개월간 전월비 증가세

- 반도체·전자부품은 전년동월비 12.6% 증가하였으나 전월비는 3.2% 감소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제조업	2.9	0.8	-0.2	-0.5	-0.9	-0.8	-0.9	-1.7
식품	1.8	1.1	-0.2	-1.4	-2.9	-2.5	-2.8	-3.2
제지	-1.7	-6.0	-8.5	-9.9	-6.6	-5.8	-4.1	-1.0
정유	1.2	-2.7	-1.3	0.3	0.8	1.8	-1.7	1.8
화학	2.2	-1.4	1.0	1.6	1.4	1.2	2.0	1.3
플라스틱·고무	2.8	-0.5	-4.1	-4.6	-6.0	-6.4	-5.3	-6.9
1차금속	-1.2	-5.0	-2.2	-0.5	-0.8	-0.7	0.9	-0.8
가공금속	3.5	1.7	0.1	0.3	-1.3	-1.3	-1.5	-2.0
기계	6.84	4.8	0.4	-2.4	-3.7	-3.1	-5.1	-5.5
컴퓨터·주변기기	15.2	11.7	11.6	13.0	14.0	14.7	14.8	18.5
통신기기	11.4	10.9	6.2	6.3	11.0	10.7	14.0	16.6
반도체·전자부품	-2.2	-3.1	-3.8	6.9	10.9	11.4	11.4	12.6
자동차·부품	7.75	7.8	5.3	8.8	7.0	7.1	6.0	-6.7
항공우주	6.52	12.5	8.0	6.4	7.1	6.9	7.7	8.3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3) 일본

□ 10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0.9% 증가

- 10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는 0.9% 증가하며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부진세 탈피
- 수송기기는 가장 크게 증가하며 제조업 생산 증가 견인
 - 수송기기는 18.5% 증가하며 1월부터 10개월간 증가세 지속
 - 그 외 플라스틱제품(4.1%), 전자부품·기기(1.3%), 전기·정보통신기기(0.2%)는 지난 4개월, 18개월, 3개월간의 부진세에서 벗어나 증가로 전환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제조업	-0.14	-0.2	-1.3	1.1	-3.6	-3.8	-4.7	0.9
철강·비철금속	-4.55	-4.5	-5.1	-1.8	-1.3	-2.7	-3.1	-1.5
금속제품	-0.51	1.8	-1.6	-2.8	-6.4	-5.6	-7.1	-0.8
생산기계	10.15	5.5	-3.7	-3.0	-18.6	-20.0	-21.4	-15.8
일반용·업무용기계	3.67	2.1	-2.0	0.2	-7.4	-8.3	-5.7	-3.3
전자부품·기기	-5.88	-11.1	-16.9	-11.0	-9.5	-8.1	-9.2	1.3
전기·정보통신기기	-0.86	5.9	5.6	6.9	-2.9	-0.8	-6.4	0.2
수송기기	-0.79	6.6	10.5	22.2	11.6	9.7	11.3	18.5
요업·토석제품	-4.57	-6.8	-7.4	-5.2	-4.6	-6.0	-3.5	-1.4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3.81	-6.8	-7.5	-6.9	-7.6	-8.2	-6.3	-2.9
석탄·석유제품	6.31	0.1	-0.5	-5.8	-4.8	-4.7	-0.6	-5.4
플라스틱제품	-2.03	-3.1	-4.9	-2.1	-3.1	-3.8	-2.1	4.1
펄프·종이·가공품	-1.04	-3.4	-4.9	-6.1	-6.3	-7.7	-5.7	-5.1
식품·담배	-0.69	-1.9	-0.5	-0.5	-	-	-	-
기타 제조업	-0.91	-2.0	-2.8	-2.4	-4.6	-3.7	-4.8	-2.1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 반면 생산기계, 석탄·석유제품, 펄프·종이·가공품 등 다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감소
 - 생산기계는 전년동월비 15.8% 감소, 전월비 12.4% 감소하며 지난 7월부터 제조업종 중 가장 크게 감소
 - 석탄·석유제품은 전년동월비 5.4%, 전월비 0.5% 감소하며 6개월간 부진세 지속
 - 펄프·종이·가공품은 5.1% 감소하며 전년 9월부터 14개월째 감소세 지속
 - 이 밖에도 요업·토석제품(-1.4%)이 전년 1월부터 22개월간 가장 장기적인 부진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2.9), 기타 제조업(-2.1%)도 각각 21개월, 13개월간 부진

(4) 유로존¹⁾

□ 10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7.1% 감소

- 10월 제조업 생산은 정유 및 자동차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부진하며 전년동월비 7.1% 감소
 - 기계의 경우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이 12.9% 감소하였고, 일반 목적용 기계 및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가 각각 3.9% 감소 및 3.1%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5.9% 감소
 - 전자부품은 부품이 5.5%, 기판이 4.9% 감소하여 4.9% 감소
 - 섬유는 방직(-10.4%), 제직(-8.5%), 기타 섬유(-3.4%)의 부진으로 4.4% 감소
 - 통신기기는 2분기까지 증가하였으나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4.5% 감소
 - 반면 자동차는 완성차와 차체 및 트레일러 부품이 각각 5.7%, 0.4%, 0.6% 증가하며 3.7% 증가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19개 국가.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1/4	2/4	3/4	8월	9월	10월
제조업 전체	4.0	1.1	0.6	-4.7	-5.1	-6.9	-7.1
식음료	0.5	-0.6	-0.8	-0.7	-0.3	-0.9	-0.9
섬유	-2.4	-8.6	-8.7	-5.2	-2.7	-5.0	-4.4
정유	3.6	0.6	-7.8	-0.7	1.5	2.8	3.6
화학	-7.0	-13.2	-10.1	-6.4	-6.3	-4.3	-0.1
고무·플라스틱	-2.3	-4.4	-5.1	-3.1	-4.0	-3.2	-2.6
1차금속	-4.4	-5.0	-4.9	-3.2	-3.8	-2.3	-2.5
조립금속	-0.3	-1.9	-2.2	-2.0	-2.0	-2.5	-4.0
기계	4.4	3.9	-0.8	-3.3	-5.3	-3.1	-5.9
통신기기	2.2	0.6	0.8	-3.2	-6.5	-1.1	-4.5
전자부품	13.5	7.7	5.8	-1.6	0.9	-6.6	-4.9
자동차	3.7	20.1	16.6	5.1	8.2	1.1	3.7
조선	1.5	4.7	1.1	4.0	4.3	5.7	-0.9

자료: Eurostat(Index. 2015=100).

Ⅱ

국내 실물경제

01 국내 경기

□ 10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1.6% 감소, 소비·투자 감소 전환

- 10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이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전월비 -3.5%)되고, 서비스업도 5개월 만에 감소(-0.9%)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1.6%)
 -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3.2%) 생산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11.4%)와 기계장비(-8.3%) 등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월비 3.5% 감소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3.3%)와 운수·창고(-1.4%)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월비 0.9% 감소
 -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전월비 4.3%)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0%)가 동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가 전월과 달리 감소하면서 전월비 기준 감소로 전환(0.1% → -0.8%)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4.1%)와 운송장비(-1.2%) 모두 전월과 달리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3.3%)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1.0%) 공사 실적의 부진에도 건축(1.3%) 공사 실적의 호조에 증가세가 지속(0.7%)
 - 동행종합지수는 수입액과 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한 반면에, 광공업생산지수와 건설기성액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소폭 상승(전월비 0.1%)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코스피지수와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하락한 반면에, 기계류내수출하지수와 장단기금리차 등이 상승하면서 6개월 연속 상승세(0.4%)

국내 실물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GDP성장률	4.3	2.6*	0.9* (0.3*)	0.9* (0.6*)	1.4*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6	4.1*	4.6* (0.6*)	1.6* (-0.1*)	0.2* (0.3*)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3	-0.9*	5.9* (-5.0*)	4.7* (0.5*)	-4.2* (-2.2*)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2.8*	1.9* (1.3*)	1.7* (-0.8*)	3.8* (2.1*)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1.2 (0.7)	-0.5 (0.3)	0.8* (1.1*)	-1.4 (-0.8)	1.2 (1.9)	2.7* (1.0*)	1.0* (-1.6*)
광공업생산지수	8.2	1.4	-9.7 (-0.9)	-7.6 (3.1)	-2.1* (1.8*)	-8.1 (-2.0)	-0.8 (5.2)	2.9* (1.7*)	1.1* (-3.5*)
제조업생산지수	8.4	1.4	-10.0 (-0.9)	-7.8 (3.3)	-2.2* (1.8*)	-8.3 (-2.2)	-0.8 (5.3)	2.9* (1.9*)	1.2* (-3.5*)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6.4 (1.2)	2.3 (-0.3)	1.9* (0.7*)	1.9 (0.3)	1.6 (0.2)	2.1* (0.5*)	0.8* (-0.9*)
소매판매액지수	5.8	-0.3	-0.4 (1.1)	-0.2 (-0.3)	-2.8* (-2.6*)	-1.7 (-3.2)	-4.7 (-0.3)	-2.0* (0.1*)	-4.4* (-0.8*)
설비투자지수	9.6	3.3	-0.5 (-8.8)	-1.2 (1.3)	-10.5* (-3.5*)	-11.2 (-8.9)	-14.6 (4.1)	-5.6* (8.7*)	-9.7* (-3.3*)
건설기성액	-6.7	2.7	11.5 (4.6)	8.9 (-0.8)	10.5* (1.0*)	10.2 (0.5)	10.0 (2.5)	11.3* (0.2*)	4.1* (0.7*)
동행종합지수(2020=100)	103.7	108.2	108.8	110.2	110.0*	110.0	110.0*	110.0*	110.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4	100.9	99.7	100.2	99.4*	99.6	99.4*	99.2*	99.1*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2	108.7	109.4	109.9	111.5*	111.1	111.4*	111.9*	112.4*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4	100.3	99.0	98.7	99.3*	99.3	99.3*	99.4*	99.7*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02 고용

□ 10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2% 증가

- 10월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농림·어업이 증가 전환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연속 상승(1.1% → 1.2%)
 - 제조업은 10개월 연속 감소(-1.7%,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 농림·어업은 6개월 만에 증가(-0.2% → 1.0%)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증가세도 3개월 연속 확대(1.7% → 1.8%)
 - 건설업은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1.7% → 0.7%)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증가세가 7개월 만에 확대(0.9% → 1.1%)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 산업	27,273	28,089	27,767	28,693	28,687	28,812	28,686	28,678	28,698	28,764
전년동기비	1.4	3.0	1.5	1.2	0.9	1.2	0.7	0.9	1.1	1.2
농림·어업	0.9	4.6	-1.6	-0.3	-1.3	-0.8	-2.5	-1.1	-0.2	1.0
제조업	-0.2	3.1	-0.8	-1.1	-1.3	-0.2	-0.8	-1.5	-1.6	-1.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1	1.8	1.5	1.6	1.3	1.6	1.7	1.8
건설업	3.7	1.6	-1.0	-2.4	-0.1	-2.8	-2.0	0.0	1.7	0.7
도소매·숙박음식점	-3.5	0.8	2.2	1.8	1.0	1.6	1.3	0.9	0.9	1.1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1.4	1.3	1.2	1.1	0.5	1.0	2.0	3.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3.0	3.9	2.9	2.8	2.2	2.6	2.2	2.4	2.0	1.8
실업률(계절조정, %)	3.7	2.9	2.7	2.6	2.6	2.6	2.8	2.4	2.6	2.5

자료: 통계청.

-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부문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5.2% → 5.9%)와 정보통신업(4.7% → 7.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1.6% → 2.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2% → 2.8%) 등에서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4.2% → 3.7%) 등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인해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1.8%)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5%로서 전월과 달리 소폭 하락

03 물가

□ 1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6% 하락, 전년동월비 3.3% 상승

- 11월 소비자물가는 음식·숙박(전월비 0.2%) 등 소수 부문에서 상승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2.6%), 교통(-1.8%), 주택·수도·전기·연료(-0.1%) 등 다수 부문에서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비 0.6% 하락(2022년 11월 이후 처음 하락)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2.5	5.1	4.7 (1.1)	3.2 (0.6)	3.1 (1.0)	2.7 (0.0)	2.3 (0.1)	3.4 (1.0)	3.7 (0.6)	3.8 (0.3)	3.3 (-0.6)
근원물가	1.8	4.1	4.9 (1.3)	4.3 (0.9)	3.9 (0.4)	4.1 (0.2)	3.9 (-0.1)	3.9 (0.2)	3.8 (0.3)	3.6 (0.4)	3.3 (0.0)

자료: 통계청.

주: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04 국내 금융·외환

□ 10월 기업대출 둔화 및 가계대출 확대, 12월 초(12월 1일 ~8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약보합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2023년 9월 +11조 3,000억 원 → 10월 +8조 1,000억 원, 대기업 +4조 3,000억 원, 중소기업 +3조 8,000억 원)
 - 대기업 대출이 기존 직접금융조달(회사채 등) 기업의 대출 활용과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보다 상당폭 증가하고, 중소기업 대출도 전월 말 추석 연휴로 지연된 대출금 상환 등으로 인하여 증가폭이 현저히 축소
 - CP·단기사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순발행 기조가 이어진 반면에, 회사채는 은행대출 등 대체 조달수단 활용으로 순상환 규모가 확대되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에 이어 소폭의 증가세가 지속

기업 자금조달 및 은행 가계대출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21		2022		2023				2023년 10월 말 잔액
	1~10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은행 원화대출	82.9	10.3	103.6	13.7	76.1	8.2	11.3	8.1	1,246.4
(대기업)	6.2	2.2	37.2	9.3	32.5	2.9	4.9	4.3	248.4
(중소기업)	76.7	8.1	66.4	4.4	43.6	5.2	6.4	3.8	998.0
<개인사업자>	33.2	2.6	20.2	0.1	7.5	1.2	0.8	0.5	450.3
회사채순발행	17.1	0.2	-5.4	-3.2	-0.3	-1.1	-0.8	-2.3	..
CP순발행	6.5	-1.0	18.7	3.1	5.7	-1.8	2.0	2.5	62.2
주식발행	26.0	1.1	20.6	0.4	7.1	0.5	2.9	0.6	..
은행 가계대출	69.1	5.2	-1.9	-0.7	28.5	6.9	4.9	6.8	1,086.6
(주택담보대출)	52.6	4.7	16.0	1.3	40.8	7.0	6.1	5.8	839.6
(기타대출)	16.4	0.5	-17.9	-1.9	-12.1	-0.1	-1.3	1.0	245.7

자료: 한국은행.

- 10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기타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2023년 9월 +4조 9,000억 원 → 10월 +6조 8,000억 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자금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되고,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월초 연휴 소비자금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증가
- 국고채(3년) 금리는 11월 중 미 노동시장의 과열 진정 조짐과 미 국채금리 하락 전환, 국내외 인플레이 우려 완화 등으로 3.6%대까지 하락하고, 12월 초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과 외인의 국채선물 매수 등으로 추가 하락(12월 1일 3.587% → 12월 8일 3.461%, -0.13%포인트)
- 원/달러 환율은 11월 중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과 위안화 약세 등에도 달러화의 약세 전환과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하락하고, 12월 초에는 단기 하락에 따른 경계 심리로 일시 상승한 이후 재차 하락 전환(12월 1일 1,305.8원 → 12월 8일 1,306.8원, +1.0원)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1	2022				2023			
	4/4	2/4	3/4	4/4	1/4	2/4	3/4	11월	12월 8일
국고채(3년)	1.80	3.55	4.19	3.72	3.27	3.66	3.88	3.58	3.46
회사채(3년, AA-)	2.42	4.36	5.28	5.23	4.07	4.47	4.64	4.32	4.17
CD(91일)	1.29	2.04	3.24	3.98	3.59	3.75	3.83	3.84	3.84
CP(91일)	1.56	2.34	3.30	5.28	4.01	4.02	4.08	4.36	4.36
원/달러	1,188.8	1,298.4	1,430.2	1,264.5	1,301.9	1,317.7	1,336.5	1,290.0	1,306.8
원/100엔	1,030.2	946.5	993.3	953.2	981.4	907.0	901.3	877.3	919.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기말 종가 기준.

05 수출입

□ 11월 수출 7.8% 증가, 수입 11.6% 감소, 무역수지 38억 달러 흑자

●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7.8%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 달러로서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규모의 흑자 기록

- 품목별로는 컴퓨터·철강·석유제품만이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와 일반기계, 가전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모습이며, 지역별로는 미국·일본·EU 등 선진권 시장을 비롯하여 인도·아세안·중남미 등 신흥권 시장으로 동반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증가율

- 수입은 석유제품 등이 증가한 반면에, 낮은 국제가격 등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가 상당폭 감소(-22.2%)하면서 감소폭이 확대

* 원유 수입은 도입단가(94.2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3.2%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이 0.5%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금액이 2.7% 감소한 약 79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수출	6,444 (25.7)	6,836 (6.1)	1,512 (-12.8)	1,558 (-12.0)	1,572 (-9.7)	505 (-16.2)	520 (-8.1)	547 (-4.4)	551 (5.1)	558 (7.8)
수입	6,151 (31.5)	7,314 (18.9)	1,740 (-2.2)	1,593 (-13.2)	1,507 (-21.6)	487 (-25.4)	510 (-22.8)	510 (-16.5)	535 (-9.7)	520 (-11.6)
무역수지	293	-478	-228	-35	65	18	10	37	16	38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11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III

주요 산업별 동향

01 제조업

(1) 총괄

□ 10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1% 증가, 전월비 3.5% 감소

- 제조업 생산이 기계장비(-13.3%), 섬유제품(-5.4), 전자부품(-3.3%) 등에서 감소한 반면에, 반도체(14.7%)와 1차금속(17.3%), 기타운송장비(9.1%), 자동차(2.8%)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1.2% 증가(2개월 연속 증가세)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7.8%)와 중공업(2.2%)에서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된 반면, 경공업(-4.3%)에서는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
 - 전월비 기준으로는 자동차(3.2%)와 1차금속(4.0%), 전자부품(10.4%)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11.4%), 기계장비(-8.3%), 기타운송장비(-5.2), 화학제품(-1.2%), 섬유제품(-4.3%)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함에 따라 3.5%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은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반도체,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0.4% 증가(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2.3%로 전월과 달리 8.4%포인트 상승 전환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10월 중 재고 증가폭(8.3% → 8.5%,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이 확대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가중치 (2020)	2021	2022	2023						
				1/4	2/4	3/4*	8월	9월*	10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8.2	109.7	99.5	104.6	106.1	105.6	108.9	107.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9.7	-7.6	-2.1	-0.8	2.9	1.1	-3.5
제조업(원지수)	9,569.5	108.4	109.9	98.8	105.2	106.4	105.7	109.6	107.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10.0	-7.8	-2.2	-0.8	2.9	1.2	-3.5
섬유	113.4	2.0	-3.5	-7.8	-9.1	-6.9	-6.0	-4.5	-5.4	-4.3
화학	854.2	8.6	-9.9	-20.4	-16.1	-3.2	-2.6	0.8	-0.1	-1.2
철강	496.6	5.2	-8.5	-6.5	-2.6	3.4	-0.5	21.1	26.3	4.9
반도체	2,023.8	26.8	7.6	-33.8	-18.6	4.7	8.4	23.6	14.7	-11.4
컴퓨터·주변장치	32.4	27.5	11.0	0.7	-14.7	-17.3	-8.8	8.3	7.6	3.1
통신·방송장비	171.0	23.5	-5.1	17.6	-12.6	-10.2	0.7	-18.4	-22.2	0.4
의료·정밀·광학	217.2	17.8	6.6	-4.3	-13.9	-14.6	-14.0	-14.2	-13.2	-5.2
기계·장비	737.3	12.1	1.1	0.7	-6.5	-12.8	-13.8	-9.7	-13.3	-8.3
자동차	987.5	6.3	9.1	21.6	15.4	4.7	8.2	0.0	2.8	3.2
조선	66.0	-7.2	20.7	19.6	4.6	9.3	12.5	9.7	-4.1	-6.7
- 중공업	-	9.9	1.5	-10.7	-7.7	-1.6	0.1	4.0	2.2	-3.6
- 경공업	-	1.3	0.4	-5.6	-8.3	-5.9	-6.0	-3.8	-4.3	-2.5
- 제조업ICT	-	19.3	2.2	-30.5	-19.1	-1.4	1.3	12.2	7.8	-7.2

자료: 통계청(*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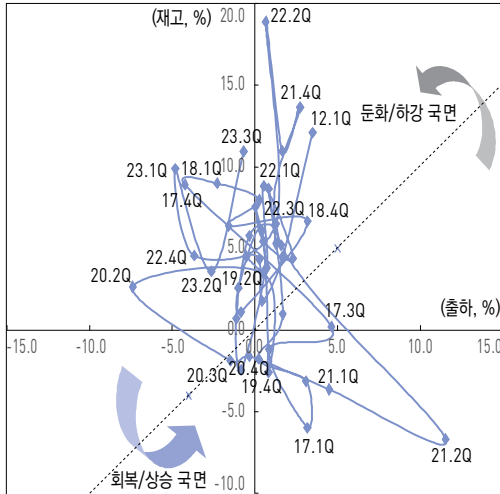
된 반면, 출하는 감소 전환(2.7% → -1.3%)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3%로 2개월 연속 하락세(3개월 만에 최저치)

□ 13대 품목 중 철강·석유제품·컴퓨터 등 제외한 10개 품목 수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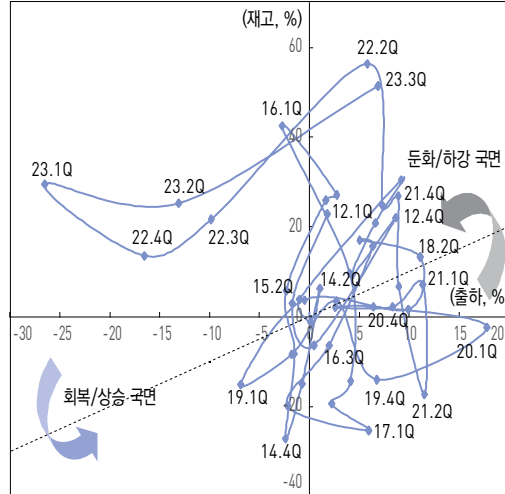
- 선박, 자동차, 기계 등 장비 업종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석유화학과 섬유 업종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IT 업종에서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가 증가 전환한 데다, 가전과 디스플레이 등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기준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10월 5.1% → 11월 7.8%)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3년 3분기)



자료: 통계청.
주: 23.3Q는 2023년 7~10월 평균.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3년 3분기)



자료: 통계청.
주: 23.3Q는 2023년 7~10월 평균.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자동차	24.2	16.4	43.9	48.9	17.1	15.0	28.7	9.4	19.8	21.5
자동차부품	22.2	2.4	-3.6	1.0	0.4	-0.5	5.9	-3.5	-3.7	3.9
선박류	16.4	-20.9	0.7	21.3	-4.0	-30.9	35.1	14.4	101.4	38.5
일반기계	4.6	2.0	-2.1	5.6	6.7	2.8	7.7	9.8	10.5	14.1
철강	36.9	5.7	-15.8	-5.7	-5.5	-10.2	-11.3	7.3	-0.7	-11.1
석유화학	54.8	-1.4	-22.3	-24.3	-13.9	-23.8	-11.4	-5.1	-3.4	5.9
석유제품	57.7	64.9	-0.5	-34.8	-27.3	-39.3	-32.6	-6.1	18.0	-4.4
섬유	14.0	-4.0	-15.2	-11.2	-11.8	-15.4	-10.9	-8.5	-9.0	1.0
가전	24.0	-7.4	-8.5	-7.5	7.1	2.4	11.7	7.8	5.7	14.1
무선통신기기	45.9	-10.4	-13.4	-20.8	-8.4	-15.4	-8.6	-3.6	-4.5	8.4
컴퓨터	24.7	-4.7	-61.9	-61.6	-48.1	-33.4	-54.7	-53.9	-30.5	-29.4
반도체	29.0	1.0	-40.0	-34.8	-22.6	-33.6	-20.6	-13.6	-3.1	12.9
디스플레이	18.9	-1.1	-39.5	-16.5	1.2	-4.6	4.1	4.0	15.5	5.9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1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2) 자동차

□ 11월 완성차 호조로 5개월 만에 수출 60억 달러 달성

- 11월 내수는 신차 효과와 SUV 차량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1.2% 증가하며 감소세 마감
 - 국산차는 SUV 차량 판매 호조와 신차 판매 증가로 4.2% 증가
 - 수입차 등록 대수는 신차 효과와 프로모션 확대에 힘입어 전월비 12.7% 증가하며 전월비 기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작년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12.3% 감소
- 11월 수출은 완성차 수출이 6월 이후 5개월 만에 6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전년동월비 17.0% 증가
 - 완성차는 신차 출시에 따른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물량 증가와 친환경 자동차 수출 호조로 21.5% 증가하며 17개월 연속 증가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3	9.1	21.6	15.4	4.7	8.2	0.0	2.8	-
	생산(전기비)	-	-	5.8	5.0	-5.4	6.1	-7.6	3.2	-
	출하	5.3	8.0	21.5	17.7	3.7	8.7	1.5	1.9	-
	재고	-6.4	23.7	23.3	8.5	22.5	22.1	22.5	19.8	-
	가동률	1.8	5.6	13.0	4.4	-3.5	-1.6	-7.1	-2.9	-
	내수판매동향	-9.0	-2.2	15.6	7.3	-3.7	0.7	-6.1	-4.7	1.2
교역 동향	수출	23.6	11.8	27.9	33.8	12.2	21.8	5.6	13.4	17.0
	수입	10.2	8.0	19.0	23.3	-15.5	-26.1	-2.6	-8.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자동차부품은 내연기관 자동차용 부품 수요 확대 등으로 3.9% 증가하며 2개월간 지속되던 감소세 마감
- 10월 생산은 SUV와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2.8% 증가
 - 일부 업체의 생산설비 조정 등에 따른 생산 차질과 일부 업체 판매 부진 등으로 가동률은 2.9% 하락하였지만, 고부가가치 차량 생산 증가로 출하는 1.9% 증가
 - 지난달 일부 업체의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문제가 해결되며 전월비 생산은 3.2% 증가

(3) 조선

□ 11월 기저효과로 생산, 출하는 감소하였고 가동률은 하락

- 11월 누적 수주량(전년동기비)은 중국 2,209만 CGT(-5.0%), 일본 429만 CGT (-22.3%), 한국 963만 CGT(-41.0%)로, 우리나라는 선별 수주를 지속하고 있으며, 생산은 증가하여 11월 누적 인도량은 808만 CGT로 전년동기비 7.1% 증가
 - 중국의 수요 회복으로 벌크선 공급이 부족해지며 벌크선 운임지수(BDI)는 단기간에 98.5% 상승하였지만,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는 신조선 인도가 지속되며 소폭 하락
 - * 클락슨 신조선가치수: (11월 3일) 176.3 → (12월 8일) 177.7
 - * 누적 수주량: (2022년 11월) 1,633만 CGT → (2023년 11월) 963만 CGT
 - * 벌크선 운임지수(BDI): (11월 3일) 1,442 → (12월 8일) 2,863
 -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 (11월 3일) 1,068 → (12월 8일) 1,032
-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4.1% 감소하였으며, 가동률도 13.2% 하락하였는데, 주요 조선사의 생산능력 확대와 전년동월 높은 가동률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영향
- 11월 수출은 2021년 이후 고선가에 수주된 물량이 인도되며 38.5% 증가
 - 인력 부족으로 생산이 지연된 물량 중 일부가 11월에 인도되었으며, 전년동월의 적은 수출액이 기저효과로 작용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7.2	20.7	19.6	4.6	9.3	12.5	9.7	-4.1	-
	생산(전기비)	-	-	1.3	-3.4	3.2	10.0	-5.0	-6.7	-
	출하	-8.1	14.0	1.2	-6.6	1.1	4.6	1.2	-9.7	-
	가동률	-0.7	23.1	16.1	1.1	0.5	3.1	-0.7	-13.2	-
교역 동향	수출	16.4	-20.9	2.0	21.3	-3.7	35.1	15.4	101.4	38.5
	수입	6.1	-13.2	-38.6	-15.7	-19.3	45.3	-43.6	-2.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 10월 수입은 2.4% 감소하였는데, 선박용 엔진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선박과 선박용 부품의 수입이 감소한 영향
 - 화물선 수입이 일본, 중국으로부터는 증가하였으나 미국, 호주, 파나마로부터는 감소한 영향으로 전체 선박 수입은 5.5% 감소
 - 한편, 선박용 부품의 수입도 8.0% 감소하였으나, 선박용 엔진의 수입이 34.6% 증가하며 기자재 수입은 증가 추세 유지

(4) 일반기계

□ 10월 생산 부진세 심화,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

- 10월 생산은 견조한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년동월비 13.3%, 전월비 8.3% 감소
 -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내수판매, 설비투자, 기계수주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생산 부진세 심화
 - * 일반기계 내수출하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8월) -12.0 → (9월) -6.0 → (10월) -9.2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2.1	1.1	0.7	-6.5	-12.8	-13.8	-9.7	-13.3	-
	생산(전기비)	-	-	-8.9	-4.5	-0.5	8.4	4.8	-8.3	-
	출하	11.6	0.3	-1.1	-3.5	-9.7	-13.3	-2.8	-9.9	-
	재고	18.3	20.1	27.5	11.1	0.3	16.1	0.3	-4.6	-
	가동률	7.3	6.2	9.5	3.4	-6.7	-3.7	-9.6	-12.8	-
교역 동향	수출	4.6	2.0	-2.1	5.6	6.7	7.7	9.8	10.5	14.1
	수입	9.6	0.7	11.4	0.5	0.2	-10.3	-2.6	-0.8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 * 일반기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8월) -23.6 → (9월) -9.4 → (10월) -15.9
- *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8월) 1.7 → (9월) -24.0 → (10월) -20.4
- 재고율(재고/출하)은 재고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출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13.6%포인트 상승한 132.9% 기록
- * 재고율(%): (2023년 8월) 145.1 → (9월) 119.3 → (10월) 132.9
- 가동률은 장기간의 생산 부진 여파로 하락세(-12.8%) 지속
- 11월 수출은 대EU, 대중동이 부진한 가운데, 대미가 크게 늘어 전년동월비 14.1% 증가
 - 대미 수출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속에 따른 산업 기계·장비 수요 확대에 64.1%의 가파른 증가세 시현
 - 중남미 지역 수출은 자원·광물 개발 활성화로 건설중장비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31.1%)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14.4%) 유지
 - * 11월 주요국 수출액(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월비): 미국(14.1, +64.1%), EU(4.3, -36.3%), 중동(1.5, -8.0%), 중남미(2.7, +14.4%)
- 10월 수입은 제조업 경기 부진 장기화로 인한 설비투자 둔화로 전년동월비 0.8%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주요 품목별로는 원동기 및 펌프(+16.2%), 압연기·용접기 및 주조설비(+10.6%),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9.8%)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62.6%), 제지인쇄기계(-14.5%), 섬유 및 화학기계(-13.7%) 등은 감소

(5) 철강

□ 10월 전월 대비 생산 증가로 전환, 수출은 단가 하락 영향으로 크게 감소

- 10월 철강 생산은 봉형강류의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생산차질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26.3% 증가
 -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관련 철강재인 H형강(-14.2%), 철근(-12.0%) 등의 수요가 10% 이상 감소한 반면 조선산업 호조에 따른 후판수요 증가로 중후판 생산은 44.4%로 크게 증가
 - 전월 대비 자동차 경기 개선에 따른 판재류 중심의 소비 확대로 생산은 증가로 전환
 - *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철강재 계(20.7%), 봉형강류(-0.8%), H형강(-11.5%), 철근(-11.9%), 선재(387.9%), 판재류(44.4%), 열연강판(63.0%), 중후판(57.4%), 용융아연도강판(37.3%), STS핫코일(1,524.3%), STS냉연강판(52.7%), 전기강판(79.4%), 강판(-1.1%)
- 11월 수출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및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내수 위축과 함께 전년도 높은 수출단가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1.1% 감소
 - 11월 철강재 수출단가는 전년동월의 톤당 1,331달러 대비 13.8% 하락한 1,147달러 수준으로, 하락세가 지속
 - 지역별로는 중국으로 하락폭이 전월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중동으로도 가격경쟁력을 가진 저가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로 25% 이상 감소
 - * 철강재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2년 11월) 1,331 → (2023년 11월) 1,147(-13.8%)
 -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35.3%), 중동(-26.5%), 미국(-15.3%), EU(-11.2%), 일본(-8.1%), 아세안(-3.9%)
- 10월 수입은 일본으로부터의 감소폭 확대와 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3% 감소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2	-8.5	-6.5	-2.6	3.4	-0.5	21.1	26.3	-
	생산(전기비)	-	-	23.2	4.4	-4.8	-0.2	-5.2	4.9	-
	출하	4.5	-7.0	-5.0	1.1	5.8	1.1	18.0	11.6	-
	재고	14.4	-9.8	-2.2	-4.2	1.1	-2.6	1.1	8.0	-
	가동률	5.5	-8.7	-7.0	-2.5	3.7	-0.2	21.7	27.2	-
교역 동향	수출	36.9	5.7	-15.8	-5.7	-5.5	-11.3	7.3	-0.7	-11.1
	수입	50.1	2.0	-8.6	-13.7	-10.5	-4.1	1.2	-0.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 10월 철강재 수입단가는 톤당 935.1달러로 8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가 영향으로 금액 기준 수입은 감소로 전환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은 고철(-28.1%), 철근(-25.4%), 용융아연도강판(-19.2%), 열연강판(-16.5%) 등의 품목에서 큰 폭으로 감소

- 중국 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품목의 수입은 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4.6%), 일본(-14.5%), 미국(6.5%), 인도(164.2%), 베트남(18.1%), 러시아(66.8%), 말레이시아(7.1%)

*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냉연강판(28.3%), 중후판(49.0%), 열연강판(6.6%), H형강(38.6%), 철근(-19.9%), 선재(-21.9%), 아연도강판(24.6%)

(6) 정유

□ 11월 수출은 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가 하락으로 감소세로 전환

- 10월 생산은 국내 정유사의 가동률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5.5% 증가
 - 내수는 수송용 석유제품의 소비 확대가 지속되고 석유화학용 나프타 수요가 증가세로 전환되며 3.9% 확대
 - * 품목별 증가율(물량기준): 항공유(31.8%), 윤활유(0.4%), 아스팔트(-20.3%), 휘발유(5.0%), LPG(5.2%), 나프타(11.0%), 병커C유(-15.9%), 경유(-14.9%)
 - 수출물량은 수송용 석유제품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21.1% 확대
 - * 품목별 증가율(물량기준): 휘발유(41.2%), 아스팔트(-28.8%), 항공유(3.1%), 나프타(-6.8%), 경유(7.7%), 윤활유(36.6%), LPG(-34.3%), 병커C유(-73.1%)
- 11월 수출액은 단가 하락으로 인해 전년동월비 4.4% 감소
 -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비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약세로 인해 8.6% 하락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7	1.8	0.2	1.7	-8.4	-14.8	-0.4	5.5	-
	생산(전기비)	-	-	0.4	2.2	-7.6	-6.2	14.9	5.5	-
	출하	-0.7	2.3	4.4	5.1	-8.9	-15.3	-0.4	5.8	-
	재고	12.6	-2.5	-7.2	-11.9	-4.6	1.8	-4.6	6.8	-
	가동률	1.8	1.9	0.5	1.6	-8.6	-14.9	-0.5	5.4	-
	내수판매동향	7.0	1.1	-3.0	-2.6	-2.5	-7.1	2.6	3.9	-
교역 동향	수출	57.7	64.9	-0.5	-34.8	-27.3	-32.6	-6.1	18.0	-4.4
	수입	86.0	10.9	-13.9	-28.9	-15.7	-15.6	18.8	20.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 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수출물량은 비중이 높은 아세안 지역으로의 증가세 지속으로 약 3.5% 증가
 -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상승률): (2022년 11월) 86.3 → (2023년 11월) 83.6(-3.1%)
 - *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2년 11월) 913 → (2023년 11월) 835(-8.6%)
 - *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2년 11월) 48.1 → (2023년 11월) 46.0(-4.4%)
- 지역별로는 아세안 및 일본으로의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중국 및 미국으로는 감소로 전환
 - * 지역별 수출액 증가율(%): 중동(319.7), 아세안(26.2), 일본(22.1), 중국(-27.3), 중남미(-28.9), 미국(-54.8), EU(-78.1)

(7) 석유화학

- 11월 석유화학제품 수출액, 인도향, 중국향 수출물량 증가에 힘입어 18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
- 10월 석유화학제품 생산량과 출하량은 전년동월비 각각 0.1%, 2.3% 감소
주요 생산시설 가동률은 2.4% 하락했고 재고량은 3.8% 감소
 - 10월 중 국내 NCC 업체들의 에틸렌 톤당 스프레드는 249달러로, 3분기 평균(267달러) 대비 소폭 하락
 - * 10월 프로필렌 계열 제품의 스프레드는 전월 대비 확대, 방향족 제품군 스프레드는 전월 대비 위축
 - 중국발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소폭 회복되며, 동아시아 시장 내 유도품 스프레드는 하락세에서 혼조세로 전환
 - * 합성수지(PE, PP, ABS), 합섬원료(EG), 합성고무(SBR) 스프레드는 전월비 상승, 건자재(PVC, PO)는 하락세
- 11월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제품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증가로 18개월 만에 전년동월비 5.9% 증가로 전환
 - 국제유가와 수출단가는 각각 3.1% 및 4.7% 하락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2022년 11월) 86.3 → (2023년 11월) 83.6(-3.1%)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8.6	-9.9	-20.4	-16.1	-3.2	-2.6	0.8	-0.1	-
	생산(전기비)	-	-	1.6	0.1	0.1	0.5	1.3	-1.2	-
	출하	6.1	-9.5	-13.6	-8.5	0.6	1.4	3.7	-2.3	-
	재고	21.9	-3.9	-2.5	-6.4	-12.2	-12.3	-12.2	-3.8	-
	가동률	8.2	-10.1	-18.9	-14.3	-4.0	-3.4	-0.7	-2.4	-
교역 동향	수출	54.8	-1.4	-22.2	-24.2	-13.4	-11.4	-5.1	-3.4	5.9
	수입	36.1	-2.3	-16.6	-20.7	-16.4	-17.4	3.5	7.7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 통계는 '석유화학 제품'(MTI 21) 당월.

- * 석유화학 수출단가(달러/톤): (2022년 11월) 1,264 → (2023년 11월) 1,205(-4.7%)
- 인도 건설업황이 호조세를 유지하며 전자재용 화학제품 수출량 증가
- 8월부터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되며 중국향 수출량이 증가한 반면, 미국은 내수 위축으로 수출량 증가폭을 제한
- * 11월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비): 인도(27.8%)

(8) 섬유

□ 10월 생산 감소, 11월 수출은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일부 회복

- 10월 생산은 세계 경기 위축,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이어지는 악재 속에서 의류 내수 시장이 부진하면서 12.5% 감소
 - 의류 내수시장은 경기침체 속에 10월 기온도 평년 대비 높아 작년에 비해 가을·겨울 상품판매가 부진하면서 감소
 - * 의류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불변, 전년동월비): (8월) -7.7% → (9월) -9.8% → (10월) -6.7%
 - * 의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증가율(전년동월비): (8월) 2.3% → (9월) -7.1% → (10월) 5.6%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4.1	-3.2	-8.8	-12.8	-9.4	-9.5	-10.2	-12.5	-
	생산(전기비)	-	-	-6.3	-3.3	0.7	-3.9	2.6	2.0	-
	출하	3.8	-5.7	-6.6	-12.0	-9.8	-10.5	-9.9	-6.8	-
	재고	-5.7	-0.1	1.1	-2.5	-0.5	-0.5	-0.5	-3.0	-
	가동률	7.7	5.3	-5.5	-9.4	-8.1	-7.3	-6.1	-6.0	-
교역 동향	수출	14.0	-4.0	-15.2	-11.2	-11.8	-10.9	-8.5	-9.0	1.0
	수입	12.9	8.8	-0.8	-6.4	-7.7	-8.0	-8.0	-5.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 10월 품목별 생산은 봉제의복과 원사, 편물, 화학섬유 등이 모두 부진
 - 봉제의복은 내수 패션 소비시장이 부진하며 18.0% 감소
 - 원사와 화학섬유는 국내 폴리에스테르 원사 공장 가동 중단으로 수출이 줄고 수입산으로 대체되면서 수출이 각각 11.3%, 34.1% 감소
 - ITY싱글스판 니트직물의 유럽 수요가 다소 풀리기 시작하면서 편물 수출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둔화(-7.1%)
 - * 봉제의복(전년동월비): (8월) -9.6% → (9월) -14.3% → (10월) -18.0%
 - * 원사(전년동월비): (8월) -10.5% → (9월) -13.5% → (10월) -11.3%
 - * 편물(전년동월비): (8월) -17.6% → (9월) -11.8% → (10월) -7.1%
 - * 화학섬유(전년동월비): (8월) -33.3% → (9월) -30.8% → (10월) -34.1%
- 11월 수출은 주요국 경기 위축과 중동 대형 직물시장의 급속한 침체에도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유럽시장에서 니트직물 주문이 늘어나면서 8개월 만에 1.0% 증가로 전환
 -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유럽에서 ITY싱글스판 니트직물 오더가 활기를 띠면서 유럽 수출 증가
 -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영향으로 중동 소비시장이 얼어붙으며 중동 수출은 감소
 - * 섬유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2022년 11월) 9.5(-20.2%) → (2023년 11월) 9.6(+1.0%)

(9) 가전

□ 글로벌 수요 증가로 수출과 생산 모두 증가세 유지

-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8.6% 증가, 전월비로는 9.8% 감소
 - 생산은 최근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로 증가세를 유지
 - * 가전제품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 전년동월비): (8월) -3.8% → (9월) -9.7%(추정) → (10월) -12.5%(추정)
 - 영상음향기기와 조명기기 분야의 판매 호조가 생산 증가를 견인한 반면, 생활가전은 내수 판매량 감소 영향으로 생산이 부진
 - 재고는 생활가전 판매 부진으로 7.6% 증가
 - 가동률은 연말 소비 촉진 확대로 11.5% 상승
- 11월 수출은 선진국 수요 증가와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14.1% 증가
 -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판매 프로모션의 확대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8	-5.3	-19.1	-15.6	10.8	16.6	8.5	8.6	-
	생산(전기비)	-	-	5.1	0.8	12.9	3.9	-2.8	-9.8	-
	출하	-10.3	-0.6	-12.2	-14.2	14.2	17.1	21.1	1.6	-
	재고	1.2	-5.3	-8.7	-6.4	10.2	14.4	4.9	7.6	-
	가동률	1.3	-9.6	-16.1	-11.8	13.6	16.7	13.6	11.5	-
교역 동향	수출	24.0	-7.4	-8.5	-7.5	7.1	11.7	7.8	5.7	14.1
	수입	19.1	-5.0	-10.2	-5.6	-8.5	-8.7	0.5	4.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 반면, 개도국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아세안 수출은 3.2% 감소 (11. 1~25일 기준)
- 전년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
 - * 11월 수출 증가율(% , 전년동월비): (2022년) -25.1 → (2023년) 14.1(추정)
- 10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4.3% 증가
 -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입국의 경기 회복과 생산 증가로 수입은 증가세를 유지
 - * 대중국 수입 증가율(% , 전년동월비): (8월) -11.5 → (9월) -0.9 → (10월) 10.7

(10) 무선통신기기

- 11월 수출, 글로벌 ICT 경기 회복세 본격화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8.4% 증가
- 지난해 3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세계 반도체 및 스마트폰, PC, 서버 등 ICT 제품 경기는 올 1분기부터 본격적 회복세 진입 전망
 - 미 연준 및 세계 주요 중앙은행 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 감소 및 주요 국제 분쟁 장기화 국면 진입과 유가 안정화 등으로 소비심리 회복 기대
 - * 가트너(2023. 10)는 2024년도 전년비 스마트폰 출하량이 4.4% 증가하고 2025년에는 5.0% 증가하여 다시금 연간 12억 대 이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 또한 데스크톱, 랩톱 및 태블릿 등 PC 역시 2024년도 전년비 2.3% 증가한 약 4억 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22.2% 감소했고 출하는 14.2% 감소하였으며, 가동률 역시 22.7% 하락했으나 재고는 12.4% 감소
 - 그러나 생산 물량의 판매 증가가 나타나고, 재고도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IDC(2023. 11)는 2023년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비 7.3% 증가하고, 2024년에는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3.5	-5.1	17.6	-12.6	-10.2	0.7	-18.4	-22.2	-
	생산(전기비)	-	-	16.0	-28.6	11.5	28.4	-10.0	0.4	-
	출하	25.0	-2.1	12.7	-5.5	-7.4	6.9	-15.9	-14.2	-
	재고	0.1	5.8	32.1	27.7	27.0	7.1	27.0	-12.4	-
	가동률	28.7	-6.1	10.2	-17.5	-15.2	-5.1	-22.0	-22.7	-
교역 동향	수출	45.9	-10.4	-13.4	-20.8	-8.4	-8.6	-3.6	-4.5	8.4
	수입	17.2	-7.2	-3.8	-25.1	-15.8	-34.3	-20.7	-10.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 카운터포인트리서치(2023. 11)는 2023년도 스마트폰 출하량을 10년 내 최저치로 평가하고, 2024년 예상 출하량을 전년대비 3% 증가한 12억 대 수준으로 전망

● 10월 수입은 스마트폰 부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10.4% 감소

- 스마트폰 완제품은 2.4% 감소했고 부품은 22.1% 감소

* 미국 애플사 신제품 초기 수요 소진 및 2024년 상반기 신규 플래그십 출시 전 재고 소진 위
한 감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무선중계기는 43.3%의 큰 폭 감소

(11) 반도체

□ 반도체 경기 하락세 탈출 분위기로 전환

● 10월 반도체 생산지수는 142.0으로 전년동월비 14.7% 상승했으나, 전기(월)비는 11.4% 하락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6.8	7.6	-33.8	-18.6	4.7	8.4	23.6	14.7	-
	생산(전기비)	-	-	-10.7	20.6	14.7	13.5	12.8	-11.4	-
	출하	21.5	0.5	-32.9	-11.5	18.0	7.3	35.7	3.7	-
	재고	27.1	15.9	42.5	49.1	58.1	65.3	58.1	44.7	-
	가동률	6.0	-3.4	-39.5	-25.0	-4.2	2.5	6.9	-1.6	-
교역 동향	수출	29.0	1.0	-40.1	-34.8	-22.5	-20.6	-13.5	-3.1	12.9
	수입	22.1	21.8	-10.4	-16.8	-22.1	-21.6	-21.6	-15.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 반도체 생산이 전년동월비 증가하였으나, 전기비 감소한 것은 지난해 동월 반도체 생산이 저조했던 것에 기인
- 가동률이 전년동월비 감소로 전환하였고 재고 수준도 여전히 높아 반도체산업 경기가 완전히 상승세로 전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
- 11월 수출액은 95억 2,000만 달러로, 올해 두 번째 수출액 상위기록이며, 전년동월비 12.9% 증가
 - 지난 10월 수출액이 전월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11월에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수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
 - 11월 수출이 전년동월비 12.9% 증가하면서 2022년 8월 이후 15개월간 이어진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
 - 우리 기업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단가가 상승하였고,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가 소폭 회복되면서 반도체 수출이 증가
 - 반도체 수입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장기간 증가하였으나,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최근 11개월 연속 감소 중
- 최근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반도체 제조기업의 감산 효과로 추정

- 최근 반도체 단가가 상승하여 우리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올해 초부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감산한 효과로 추정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 글로벌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반도체 수요도 갑자기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다만, 최근 반도체 수급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불황의 최저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며 완만한 상승세를 기대

(12) 디스플레이

□ 글로벌 고부가 패널 시장 확대로 수출 증가 지속

- 10월 생산은 LCD 감산에도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로 인하여 감소폭 축소
 - LCD 감산으로 인한 LCD 소재 부품 생산 감소의 효과로 OLED 생산도 전년동월비 3.3% 감소
 - 생산 지표를 제외하고 출하량, 재고, 가동률 모두 상승으로 반전하여 전반적인 생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4.7	-14.7	-33.0	-20.8	-19.0	-22.3	-14.4	-3.3	-
	생산(전기비)	-	-	-9.6	3.4	-6.3	-3.8	3.5	10.4	-
	출하	-9.5	-17.5	-30.5	-20.1	-18.5	-21.9	-14.6	7.4	-
	재고	38.5	-24.9	-29.7	-39.9	-5.6	-30.1	-5.6	26.7	-
	가동률	-7.3	-6.5	0.3	17.8	9.0	1.6	13.3	26.4	-
교역 동향	수출	18.9	-1.1	-22.1	-19.7	1.2	4.1	4.2	15.5	5.9
	수입	-12.8	30.7	-39.5	-16.5	-0.8	4.8	-9.4	63.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 11월 패널 수출은 글로벌 고부가 패널 시장 확대로 5.9% 증가하였으며, 4개월 연속 수출 증가
 - LCD 수출은 글로벌 고부가 패널 시장 확대로 23.1%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
 - LCD TV 패널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나, 우리 주력 제품인 모니터, 노트북 패널 가격은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수출로의 영향력은 한시적일 것
 - 스마트폰 OLED의 신제품 효과로 전반적인 수요 확대가 나타났으나, 패널 수출이 10월에 집중되어 11월 OLED 수출은 1.4% 소폭 증가하였으며, 4개월 연속 증가
 - 국내 전자기업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패널 수요가 확대되어 대아세안 수출은 7.7% 증가

02 서비스산업

(1) 생산

□ 10월 생산, 전년동월비 0.8% 증가

- 10월 생산은 0.8%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지난달에 이어 운수·창고, 보건·사회복지 등이 호조세를 이어간 반면, 서비스산업 내 비중이 큰 도·소매, 숙박·음식점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
- 서비스산업 중 생산, 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올해 가장 큰 3.7% 감소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은 세부 업종 중 차량 판매 부진에 따라 자동차 판매업이 4.3% 감소
 -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음식료품 도매업이 8.8%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은 16.9% 감소
 - 소매업도 물가 상승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대형마트와 같은 종합소매업(-4.4%),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13.7%),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9.9%)의 실적이 크게 감소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8월	9월*	10월*
서비스 총지수	100.0	105.2	112.4	115.2	114.6	113.9	115.6	114.4
상승률	-2.0	5.2	6.8	2.0	1.5	1.6	2.1	0.8
전기비	-	-	-	-0.3	0.8	0.2	0.5	-0.9
도·소매	-2.6	5.3	2.6	-1.9	-2.7	-3.5	-0.3	-3.7
운수·창고	-14.1	4.2	17.7	9.5	8.6	8.0	10.3	6.6
숙박·음식점	-18.4	1.9	16.9	-2.7	-4.7	-5.0	-1.3	-5.2
정보통신	1.5	12.2	1.8	-3.9	-1.7	-1.3	-3.6	-0.3
금융·보험	14.0	8.0	8.4	7.1	4.8	5.4	1.7	1.5
부동산	5.5	2.3	7.9	3.0	2.4	2.1	2.2	-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0	2.8	2.0	2.7	2.4	1.4	2.5	2.8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9.8	2.3	5.2	3.5	3.4	3.1	4.0	3.3
교육	-4.5	1.5	1.2	0.2	1.4	0.7	1.9	1.0
보건·사회복지	1.5	5.1	7.2	3.5	5.1	5.7	5.7	5.6
예술·스포츠·여가	-32.6	15.4	44.8	6.6	-1.9	-0.7	4.4	1.8
협회·수리·개인서비스	-8.3	1.9	4.4	5.4	6.2	7.3	3.1	2.6
수도·하수·폐기물처리	3.2	2.3	-4.7	-1.6	-1.0	1.0	-1.0	-2.3
지식서비스	3.1	6.0	4.7	2.6	2.8	2.9	1.7	2.1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 운수·창고업은 항공 운송업(66.1%), 수상 운송업(29.9%)의 호조세로 인해 지난달에 이어 6.6%로 크게 증가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 도로 화물운송업이 20.8%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4.7% 증가
 - 항공 운송업은 항공 여객운송업이 70.7%로 크게 증가하여 항공 화물운송업의 감소(-14.5%)에도 불구하고 증가세 지속

- 숙박·음식점업은 국내여행 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 모든 업종의 실적 악화로 인해 5.2% 감소
 - 숙박업의 경우 호텔업의 생산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여관업이 9.0%로 크게 감소하며 숙박업 형태에 따라 양극화 현상 지속
 - 음식점업은 모든 세부 업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음료점업은 커피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3.1% 증가하였으나, 주점업은 지난달에 이어 14.3%로 크게 감소
- 정보통신업은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의 실적 개선으로 지난달 대비 소폭 감소
 - 그러나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보험 및 연금업의 생산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소폭 증가
 - 보험 및 연금업은 연금 및 공제업이 48.2%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험업, 재보험업 등 기타 세부 업종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감소세 지속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지난달과 비슷한 증가세 기록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지난달에 호조세를 보였던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타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5% 이상 감소
 - 반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세부 업종별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 기록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둔화된 증가폭이 7월 이후부터 3개월 연속 5%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하며 다시 확대
 - 증가폭의 확대 추세는 보건업보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같은 기간 크게 확대된 것에 기인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감소하여 각각 1.8%, 2.6%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1.4%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세가 둔화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16.1% 감소함에 따라 증가폭이 감소

(2) 고용

□ 10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42만 1,000명(2.1%) 증가

- 10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보건·사회복지, 숙박·음식점,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정보통신업 등의 증가로 약 42만 1,000명 증가
 - 지난달과 비교하였을 때도 7만 6,000명(0.4%) 증가하며 전기 대비 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2만 명(4.3%) 증가하며 가장 많은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숙박·음식점업이 10만 3,000명(4.6%) 증가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 이후 매월 감소하고 있으며, 이번 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최저치 기록
- 전문·과학·기술서비스(7만 7,000명, 6.0%), 정보통신(7만 2,000명, 7.3%),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3만 8,000명, 2.7%), 운수·창고업(2만 3,000명, 1.4%)도 증가
 - 운수·창고업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평균적으로 3만 명 이상 감소하였으나,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정보통신업도 지난달까지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번 달에는 모두 증가폭이 확대
-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각각 2만 명(-0.6%), 2만 4,000명(-1.3%) 감소
 - 도·소매업은 작년 8월 이후 가장 적은 취업자 수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며, 교육서비스업은 2021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경우가 없었으나, 이번 달을 포함하여 올해 1월, 8월 등은 취업자 수가 감소
- 지식서비스업은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증가하며 26만 3,000명(3.4%) 증가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8월	9월	10월
총취업자 수	18,866	19,173	19,752	20,314	20,267	20,263	20,238	20,314
증감률	-1.3	1.6	3.0	2.2	1.8	1.5	1.7	2.1
전기비	-	-	-	2.7	-0.2	-0.2	-0.1	0.4
도·소매	-4.4	-4.3	-1.2	-1.2	-1.4	-2.2	-1.3	-0.6
운수·창고	3.6	7.0	4.4	-1.6	-0.8	-2.4	-0.7	1.4
숙박·음식점	-6.9	-2.1	4.0	6.4	4.8	5.4	3.3	4.6
정보통신	-1.6	6.4	8.9	4.9	4.7	4.2	4.9	7.3
금융·보험	-2.7	2.8	-3.3	2.1	0.0	-0.8	0.1	2.3
부동산	-7.0	2.7	4.0	-3.6	-3.8	-2.7	-4.6	-6.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6	4.7	5.7	8.0	4.8	3.7	4.9	6.0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2.7	3.7	1.9	0.1	1.7	3.3	1.8	2.7
공공행정·국방	3.3	2.8	6.1	1.2	1.4	1.6	1.1	2.2
교육	-4.6	2.3	3.4	0.9	0.1	-2.1	0.4	-1.3
보건·사회복지	5.9	8.5	7.1	5.3	4.8	5.7	5.1	4.3
예술·스포츠·여가	0.3	-5.8	3.2	9.5	3.8	5.9	3.4	3.4
협회·수리·개인서비스	-3.5	-4.5	-1.4	0.4	1.5	1.3	1.6	0.9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2.9	10.5	-8.9	-3.3	2.1	2.1	0.7	-2.8
지식서비스	0.2	5.4	5.0	4.3	3.2	2.6	3.4	3.4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민간 부문 취업자 수는 39만 3,000명 증가하였으며, 지난 8월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68만 명 이상 증가하며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8월 이후 이번 달까지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68만 1,000명(2023년 2월) → 57만 5,000명(4월) → 39만 9,000명(6월) → 28만 2,000명(8월) → 31만 8,000명(9월) → 39만 3,000명(10월)

(3) 서비스수지

□ 10월 서비스수지, 12억 5,400만 달러 적자

- 10월 서비스수지는 기타사업서비스수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여행서비스수지 등의 적자 감소 및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수지의 흑자 확대에 따라 전월 대비 19억 3,200만 달러 증가하며 서비스수지 적자가 개선
- 지난달에 비해 서비스수입은 17억 3,9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서비스지급은 1억 9,000만 달러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감소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8월	9월	10월
서비스수지	-16,190	-3,108	-5,548	-4,725	-7,279	-1,565	-3,185	-1,254
가공서비스	-5,685	-5,115	-6,048	-1,553	-1,798	-548	-670	-535
유지보수	-913	-1,006	-1,621	-424	-490	-158	-136	-190
운송	2,132	15,427	13,121	-292	8	-19	-66	-303
여행	-5,630	-6,226	-7,929	-2,594	-3,543	-1,142	-970	-642
건설	4,770	4,100	5,253	1,440	1,009	268	312	396
보험	-336	-295	40	-189	-95	-26	-38	91
금융	1,757	1,647	310	592	323	-6	193	187
지식재산권사용료	-3,034	-3,059	-3,751	-593	-977	37	-669	-339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1,604	3,515	1,987	815	660	223	144	326
기타사업서비스	-10,410	-12,222	-7,585	-2,020	-2,551	-257	-1,287	-468
개인, 문화, 여가	184	783	1,182	189	167	61	35	98
정부	-629	-658	-506	-96	7	2	-34	125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 가공서비스수지는 지난달에 비해 적자 규모가 1억 3,000만 달러 이상 감소한 반면, 유지 보수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는 소폭 증가
- 운송수지는 항공운송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수지 적자 규모 확대에 따라 적자 규모 증가
 - 항공운송수지는 전월 대비 약 4,300만 달러 증가한 3억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해상운송수지는 적자 크기가 2억 8,000만 달러 이상 증가
- 여행수지는 올해 7월 이후 적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번 달에도 이어져 전월 대비 3억 2,000만 달러 이상 증가하며 6억 4,200만 달러 적자 기록
 - 방한 외래관광객 증가에 따라 일반여행수입이 3억 3,000만 달러 이상 증가하였고, 유학 연수에 대한 지급규모는 6,000만 달러 이상 감소하여 전체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은 증가한 반면, 사용료지급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달에 비해 3억 3,000만 달러 이상 증가하며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
 - 사용료수입은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지급은 컴퓨터소프트웨어 복제 및 배포권사용료지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수지는 지난달에 비해 흑자 규모가 약 1억 8,000만 달러 이상 확대
 - 통신서비스수지, 정보서비스수지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컴퓨터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1억 8,500만 달러 증가
- 지난달 크게 확대되었던 기타사업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는 이번 달에 다시 8억 달러 이상 감소하며 전체 서비스수지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
 - 기술, 무역, 기타사업서비스수지가 7억 5,000만 달러 이상 증가하여 지난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전문, 경영컨설팅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도 1억 2,000만 달러 이상 감소

IV

지역별 동향

01 개관

(1) 생산

- 10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충북(7.7%), 경기(3.5%), 전남(2.3%)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부산(-16.1%), 전북(-12.3%), 제주(-10.7%)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전국		8.2	1.4	-6.4	-9.7	-7.6	-2.1	-8.1	-0.8	2.9	1.1
수도권	서울	9.1	-2.0	-10.5	-13.3	-5.0	-0.7	6.6	-6.8	-1.7	-5.8
	인천	13.2	1.0	4.8	3.6	-1.1	-2.3	0.2	4.3	-10.7	2.3
	경기	14.3	4.1	-10.5	-23.4	-16.6	-2.5	-13.9	-1.2	9.1	3.5
충청권	대전	4.2	-1.4	-1.4	-2.5	-4.9	-7.2	-11.3	0.2	-9.8	-6.0
	세종	10.4	3.3	3.4	-5.2	1.7	-3.4	-0.1	-4.2	-6.2	-3.7
	충북	14.4	-0.8	-13.9	-11.6	-7.9	-7.6	-7.1	-7.3	-8.1	7.7
	충남	12.0	-0.2	-1.7	-6.0	-4.1	-4.5	-9.0	-1.8	-2.5	-3.0

(계속)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호남권	광주	7.3	3.2	-2.6	2.8	-2.7	-1.3	0.2	-0.6	-3.5	-5.2
	전북	7.8	2.9	0.3	-3.4	-2.4	-6.8	-7.4	-6.8	-6.3	-12.3
	전남	8.0	-2.9	-11.2	-3.5	-2.5	-2.2	-5.8	-1.3	0.8	2.3
대경권	대구	11.5	5.0	5.9	5.2	-1.0	-6.1	-4.6	-5.6	-8.2	-4.0
	경북	4.8	-1.4	-6.0	-0.1	-5.7	-7.7	-13.2	-9.4	0.3	-3.1
동남권	부산	2.4	9.7	7.7	-1.3	-9.1	-15.9	-21.8	-13.6	-11.3	-16.1
	울산	6.6	-1.0	-3.8	-1.7	-2.8	0.4	-4.1	3.5	2.0	-0.6
	경남	3.9	5.7	5.4	2.8	-2.5	0.8	0.7	1.4	0.0	-3.1
강원권		1.7	5.7	4.9	8.2	1.0	1.5	-1.0	-2.1	8.2	-1.5
제주권		5.4	6.7	4.9	0.5	0.7	-3.0	-4.5	-6.3	2.6	-10.7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이며, 2020=100.

(2) 고용

- 10월 전국 취업자 수는 2,876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1.2% 증가
 - 제주(-1.9%), 전남(-0.8%), 경북(-0.5%), 충남(-0.2%)은 감소하였으며, 세종(4.5%), 강원(2.4%), 대구(2.2%)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전국		27,273 (1.4)	28,089 (3.0)	28,216 (2.2)	27,767 (1.5)	27,767 (-2.0)	28,687 (0.9)	28,686 (0.7)	28,678 (0.9)	28,698 (1.1)	28,764 (1.2)
수도권	서울	5,055 (0.1)	5,113 (1.1)	5,127 (0.5)	5,096 (0.7)	5,096 (-0.7)	5,188 (1.1)	5,178 (0.7)	5,203 (1.5)	5,181 (1.0)	5,223 (2.3)
	인천	1,563 (0.2)	1,614 (3.3)	1,641 (4.5)	1,613 (3.3)	1,613 (-0.1)	1,684 (2.7)	1,681 (2.6)	1,687 (3.2)	1,684 (2.5)	1,672 (1.6)
	경기	7,150 (3.5)	7,597 (6.3)	7,606 (3.6)	7,476 (1.1)	7,476 (-2.9)	7,727 (0.4)	7,731 (-0.0)	7,726 (0.6)	7,724 (0.8)	7,748 (1.2)

(계속)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충청권	대전	785 (0.6)	794 (1.1)	805 (1.1)	794 (1.4)	794 (0.6)	798 (0.1)	788 (-0.6)	798 (-0.4)	807 (1.1)	803 (-0.5)
	세종	185 (2.8)	197 (6.5)	202 (9.2)	203 (8.6)	203 (2.0)	211 (5.0)	211 (5.0)	212 (5.0)	210 (4.0)	211 (4.5)
	충북	897 (0.8)	926 (3.2)	930 (1.8)	908 (1.3)	908 (-3.4)	951 (1.4)	948 (1.0)	951 (1.1)	953 (1.9)	954 (1.3)
	충남	1,193 (1.4)	1,226 (2.8)	1,245 (3.0)	1,178 (2.4)	1,178 (-5.1)	1,278 (0.9)	1,274 (0.8)	1,279 (0.9)	1,282 (0.9)	1,280 (-0.2)
호남권	광주	745 (-0.4)	750 (0.7)	757 (2.3)	759 (2.6)	759 (1.3)	773 (2.5)	775 (2.8)	770 (2.1)	775 (2.6)	776 (1.8)
	전북	953 (2.3)	968 (1.6)	961 (0.6)	954 (2.1)	954 (-3.2)	1,002 (1.1)	1,000 (-0.5)	1,003 (1.9)	1,003 (1.8)	999 (1.4)
	전남	985 (1.1)	1,010 (2.5)	1,016 (2.0)	1,003 (2.2)	1,003 (-2.1)	1,024 (0.3)	1,030 (1.9)	1,022 (0.1)	1,020 (-1.0)	1,018 (-0.8)
대경권	대구	1,217 (2.8)	1,228 (0.9)	1,226 (0.1)	1,220 (0.4)	1,220 (-1.1)	1,264 (2.0)	1,278 (3.0)	1,258 (1.6)	1,257 (1.5)	1,261 (2.2)
	경북	1,410 (-0.6)	1,462 (3.7)	1,464 (2.5)	1,426 (1.5)	1,426 (-4.4)	1,465 (-1.4)	1,466 (-1.5)	1,457 (-2.3)	1,474 (-0.1)	1,486 (-0.5)
동남권	부산	1,657 (1.0)	1,679 (1.3)	1,692 (2.0)	1,680 (2.1)	1,680 (-0.1)	1,705 (0.5)	1,704 (0.9)	1,700 (-0.2)	1,712 (0.9)	1,701 (0.6)
	울산	555 (-0.9)	566 (2.0)	571 (2.0)	564 (2.4)	564 (-0.9)	573 (0.2)	575 (0.5)	570 (-0.5)	574 (0.3)	575 (0.3)
	경남	1,732 (0.2)	1,740 (0.5)	1,740 (0.9)	1,715 (0.2)	1,715 (-2.9)	1,771 (1.5)	1,779 (1.5)	1,765 (1.4)	1,768 (1.6)	1,783 (2.0)
강원권		809 (1.8)	818 (1.1)	820 (0.0)	786 (2.7)	786 (-6.2)	869 (2.5)	867 (2.1)	871 (2.8)	868 (2.2)	867 (2.4)
제주권		383 (1.3)	402 (5.0)	413 (6.2)	392 (-0.3)	392 (-1.3)	405 (0.2)	403 (0.5)	406 (0.2)	406 (0.0)	408 (-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3) 수출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1% 증가한 550억 달러를 기록
 - 전월과 달리 수출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경남(47.5%), 제주(38.5%), 경기(19.1%)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고, 충남(-20.9%), 전북(-14.6%), 세종(-13.0%) 등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전국		25.7	6.1	-10.0	-12.8	-12.0	-9.7	-16.2	-8.1	-4.4	5.1
수도권	서울	28.5	-2.4	-12.9	-6.7	-3.0	1.1	-6.0	11.0	-0.4	8.8
	인천	25.7	14.5	-9.3	-5.4	5.7	-9.8	-13.2	-10.6	-5.5	3.8
	경기	19.7	-0.3	-16.4	-18.1	-15.9	-5.2	-14.8	-2.4	2.2	19.1
충청권	대전	-1.3	-5.4	-18.3	-13.2	-11.7	-17.2	-31.6	-9.6	-5.2	16.7
	세종	17.8	5.8	-15.4	-34.5	-31.5	-23.4	-23.7	-20.6	-25.7	-13.0
	충북	15.7	12.7	-1.0	-8.0	-17.0	-21.0	-16.9	-21.3	-24.3	-5.1
	충남	30.9	3.2	-20.6	-35.3	-31.1	-27.3	-26.8	-28.3	-26.8	-20.9
호남권	광주	20.6	8.1	-1.6	5.8	-3.4	0.3	-4.5	0.5	6.0	-8.8
	전북	33.9	5.1	-11.2	-14.4	-8.0	-15.0	-21.1	-13.9	-9.6	-14.6
	전남	59.8	14.2	-13.3	-17.1	-32.7	-25.3	-36.4	-31.3	-5.8	13.2
대경권	대구	26.6	34.1	28.1	27.6	12.9	-8.4	-10.1	-8.8	-6.2	-11.3
	경북	19.5	5.8	-8.7	-5.2	-1.2	6.0	5.6	4.0	8.4	-5.4
동남권	부산	30.9	9.3	-6.9	-6.7	-5.2	-9.7	-19.9	4.8	-12.6	-9.4
	울산	32.4	21.3	8.9	0.4	-11.2	-6.1	-17.9	-4.1	5.4	11.1
	경남	9.4	-7.2	-5.6	-2.4	25.1	7.3	-13.3	23.9	22.7	47.5
강원권		34.9	0.8	-12.4	-15.9	-6.9	15.6	36.5	7.4	1.8	-1.4
제주권		47.1	-13.6	-18.5	-24.1	-22.0	15.0	50.0	-7.1	7.1	38.5

자료: 한국무역협회.

02 지역별 동향

(1) 수도권

□ 서울

- 생산 감소(-5.8%), 고용 증가(2.3%), 수출 증가(8.8%)
 - 주요 업종인 식료품(24.3%)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복 및 모피제품(-20.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1.6%)가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10.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5%)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부품(-10.3%)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누치약 및 화장품(11.0%), 합성수지(1.4%)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인천

- 생산 증가(2.3%), 고용 증가(1.6%), 수출 증가(3.8%)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6.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8.0%), 기타 기계 및 장비(2.3%)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4.9%)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4%)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8.7%)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약 및 의약품(19.1%), 자동차(9.7%) 등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경기

- 생산 증가(3.5%), 고용 증가(1.2%), 수출 증가(19.1%)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3.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7.9%)이 감소하

수도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 산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3.6	-0.1	-9.8	-9.6	-18.2	-10.9	-1.0	-12.7	-18.0	-20.9
		전자부품 외	9.0	-3.9	1.8	-11.3	18.6	-5.1	3.7	-16.5	-2.2	-11.6
		식료품	-2.3	4.5	5.2	17.8	21.8	6.3	9.3	1.1	8.7	24.3
	인천	기계 및 장비	62.9	-12.3	16.8	15.0	-4.7	-30.1	-21.7	-25.2	-41.6	2.3
		전자부품 외	5.4	14.5	10.8	20.1	11.1	41.5	48.8	70.4	9.0	26.7
		의약품 외	26.2	14.9	-2.6	-14.6	-12.2	-11.6	-10.3	-13.5	-10.9	8.0
	경기	전자부품 외	23.3	7.8	-19.8	-37.8	-24.0	-1.2	-18.8	0.4	18.0	9.1
		기계 및 장비	14.2	3.7	13.7	-12.5	-18.2	-20.5	-29.6	-15.7	-14.8	-13.7
		고무 및 플라스틱	0.6	-3.6	-6.2	-9.7	-9.5	-2.7	-3.0	-4.3	-0.7	-7.9
고 용	서울	농림·어업	5 (-28.6)	6 (20.0)	6 (50.0)	5 (25.0)	5 (-28.6)	4 (-42.9)	5 (-28.6)	4 (-33.3)	4 (-42.9)	4 (-33.3)
		제조업	442 (-1.1)	450 (1.8)	440 (-0.5)	454 (0.0)	454 (1.1)	478 (4.6)	472 (3.1)	486 (5.7)	476 (5.3)	487 (10.9)
		SOC·서비스	4,609 (0.3)	4,658 (1.1)	4,681 (0.5)	4,637 (0.7)	4,637 (-0.9)	4,706 (0.8)	4,701 (0.5)	4,714 (1.1)	4,702 (0.7)	4,732 (1.5)
	인천	농림·어업	9 (-35.7)	2 (-77.8)	2 (-50.0)	2 (100.0)	2 (0.0)	2 (0.0)	2 (-33.3)	2 (0.0)	2 (0.0)	1 (0.0)
		제조업	312 (-3.7)	322 (3.2)	321 (0.3)	308 (-4.9)	308 (-4.6)	323 (0.3)	320 (0.6)	327 (2.5)	321 (-2.4)	313 (-4.9)
		SOC·서비스	1,241 (1.6)	1,289 (3.9)	1,318 (5.8)	1,302 (5.4)	1,302 (1.1)	1,359 (3.4)	1,358 (3.1)	1,358 (3.4)	1,361 (3.7)	1,359 (3.4)
	경기	농림·어업	107 (0.0)	131 (22.4)	127 (11.4)	92 (4.5)	92 (-37.0)	176 (8.6)	168 (0.6)	178 (12.7)	182 (13.0)	185 (18.6)
		제조업	1,344 (4.8)	1,468 (9.2)	1,483 (10.5)	1,445 (1.5)	1,445 (-2.2)	1,424 (-4.4)	1,456 (-2.2)	1,413 (-5.0)	1,403 (-5.9)	1,381 (-8.1)
		SOC·서비스	5,699 (3.3)	5,999 (5.3)	5,995 (1.9)	5,939 (1.0)	5,939 (-2.2)	6,126 (1.4)	6,106 (0.5)	6,133 (1.6)	6,139 (2.1)	6,181 (3.0)
수 출	서울		68,538 (28.5)	66,904 (-2.4)	15,370 (-12.9)	16,204 (-6.7)	17,207 (-3.0)	16,612 (1.1)	5,506 (-6.0)	5,492 (11.0)	5,614 (-0.4)	5,396 (8.8)
	인천		47,395 (25.7)	54,309 (14.6)	13,327 (-9.3)	12,452 (-5.4)	13,798 (5.7)	13,283 (-9.8)	4,392 (-13.2)	4,297 (-10.6)	4,594 (-5.5)	4,699 (3.8)
	경기		137,832 (19.7)	137,460 (-0.3)	31,111 (-16.4)	29,029 (-18.1)	30,483 (-15.9)	32,799 (-5.2)	10,295 (-14.8)	10,591 (-2.4)	11,913 (2.2)	11,533 (19.1)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9.1%) 등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8.1%)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18.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0%)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제조용장비(-14.8%)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82.4%), 반도체(47.4%), 자동차(15.0%) 등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2) 충청권

□ 대전

- 생산 감소(-6.0%), 고용 소폭 감소(-0.5%), 수출 증가(16.7%)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17.0%)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9.1%), 담배 제조업(-2.7%)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0%) 증가는 소폭에 그치고, 제조업(-5.1%)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소폭 감소
 -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17.4%)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및 펌프(14.7%), 자동차부품(11.9%), 우주선 및 부품(0.0%)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 세종

- 생산 감소(-3.7%), 고용 증가(4.5%), 수출 감소(-13.0%)
 - 주요 업종인 식료품 제조업(13.5%)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2.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8%)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감소
 - 제조업(6.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9%)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기타화학공업제품(585.3%), 농약 및 의약품(28.2%) 등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구부품(-1.1%)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충청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대전	담배 제조업	-2.6	-1.8	2.1	18.8	2.2	-2.0	-3.5	14.9	-15.9	-2.7	
		화학제품 외	-10.0	-21.2	-27.7	-42.1	-8.8	2.9	12.9	-5.9	1.7	-19.1	
		기계 및 장비	1.2	8.1	12.6	0.1	11.7	-3.0	-23.6	55.9	-19.1	17.0	
	세종	전자부품 외	30.8	7.6	-20.4	-47.3	-41.9	-39.0	-40.2	-33.5	-42.8	-32.2	
		화학제품 외	3.8	3.4	24.1	-16.8	-2.8	-11.4	7.7	-28.5	-15.2	-12.8	
		식료품	2.5	-1.5	6.2	9.3	13.9	4.2	6.7	12.1	-5.5	13.5	
	충북	전자부품 외	32.4	-5.1	-44.5	-35.2	-13.8	-5.6	-7.7	-5.0	-4.6	70.0	
		화학제품 외	19.3	-38.1	-29.3	-31.4	-13.1	0.5	-3.0	12.0	-6.3	-4.0	
		식료품	4.5	2.7	-4.5	-9.1	-4.1	-3.3	-5.0	-4.1	-0.9	0.9	
	충남	전자부품 외	27.2	-7.9	-12.6	-25.5	-15.5	-7.2	-21.9	0.5	0.8	-9.8	
자동차 및 트레일러		4.8	7.9	13.6	28.3	14.7	6.7	7.9	11.6	1.1	11.6		
화학제품 외		9.3	-4.0	-11.1	-10.4	-16.7	-6.3	-7.1	-6.9	-4.6	-1.9		
고용	대전	농림·어업	8 (0.0)	9 (12.5)	8 (-20.0)	7 (-22.2)	7 (-22.2)	9 (0.0)	8 (-11.1)	9 (-10.0)	9 (0.0)	9 (12.5)	
		제조업	91 (-13.3)	78 (-14.3)	78 (-9.3)	77 (-3.8)	77 (-1.3)	76 (0.0)	74 (-2.6)	75 (0.0)	78 (0.0)	75 (-5.1)	
		SOC·서비스	684 (2.5)	707 (3.4)	720 (3.0)	711 (2.4)	711 (1.3)	713 (0.1)	706 (-0.4)	714 (-0.4)	720 (1.4)	719 (0.0)	
	세종	농림·어업	9 (12.5)	8 (-11.1)	7 (-12.5)	6 (0.0)	6 (-40.0)	8 (0.0)	8 (-11.1)	9 (12.5)	8 (0.0)	8 (0.0)	
		제조업	24 (0.0)	28 (16.7)	30 (20.0)	29 (11.5)	29 (3.6)	30 (3.4)	30 (3.4)	30 (3.4)	31 (6.9)	31 (6.9)	
		SOC·서비스	153 (3.4)	161 (5.2)	164 (7.9)	169 (9.0)	169 (4.3)	172 (4.9)	173 (5.5)	173 (5.5)	171 (4.3)	172 (4.9)	
	충북	농림·어업	96 (3.2)	101 (5.2)	97 (-4.0)	89 (-4.3)	89 (-16.0)	119 (9.2)	119 (14.4)	121 (9.0)	117 (6.4)	116 (10.5)	
		제조업	212 (5.5)	198 (-6.6)	189 (-10.4)	189 (-10.4)	189 (-4.5)	198 (2.1)	200 (3.1)	195 (0.5)	198 (2.6)	194 (3.2)	
		SOC·서비스	588 (-1.3)	626 (6.5)	644 (7.2)	629 (6.6)	629 (-0.8)	634 (-0.2)	629 (-1.7)	635 (0.0)	637 (1.0)	644 (-0.8)	
	충남	농림·어업	177 (9.3)	179 (1.1)	161 (-9.6)	118 (-15.1)	118 (-44.1)	198 (-3.4)	196 (-4.9)	199 (-5.2)	201 (1.5)	199 (1.0)	
		제조업	257 (2.8)	252 (-1.9)	258 (-1.5)	266 (5.6)	266 (9.9)	273 (7.5)	276 (7.4)	274 (9.2)	269 (5.5)	269 (3.5)	
		SOC·서비스	760 (-0.5)	795 (4.6)	825 (7.3)	795 (4.6)	795 (0.9)	807 (-0.1)	802 (0.1)	807 (0.1)	812 (-0.7)	812 (-1.7)	
	수출	대전		4,953 (-1.3)	4,686 (-5.4)	1,028 (-18.3)	1,069 (-13.2)	1,144 (-11.7)	936 (-17.2)	314 (-31.6)	310 (-9.6)	312 (-5.2)	406 (16.7)
		세종		1,532 (17.8)	1,621 (5.8)	356 (-15.4)	273 (-34.5)	300 (-31.5)	314 (-23.4)	100 (-23.7)	104 (-20.6)	110 (-25.7)	120 (-13.0)
		충북		28,766 (15.7)	32,428 (12.7)	7,177 (-1.0)	7,449 (-8.0)	6,973 (-17.0)	6,895 (-21.0)	2,228 (-16.9)	2,306 (-21.3)	2,361 (-24.3)	2,119 (-5.1)
충남		104,122 (30.9)	107,489 (3.2)	23,107 (-20.6)	18,708 (-35.3)	19,531 (-31.1)	19,710 (-27.3)	6,305 (-26.8)	6,559 (-28.3)	6,846 (-26.8)	6,716 (-20.9)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충북

- 생산 증가(7.7%), 고용 증가(1.3%), 수출 감소(-5.1%)
 - 지역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4.0%)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70.0%), 식료품 제조업(0.9%)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8%)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3.2%)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목인 반도체(47.5%)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전지 및 축전지(-35.3%), 정밀화학 원료(-19.5%)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충남

- 생산 감소(-3.0%), 고용 소폭 감소(-0.2%), 수출 감소(-20.9%)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1.6%)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9.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9%) 등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3.5%)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7%)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소폭 감소
 - 주력수출품 중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8.9%), 석유제품(7.4%)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37.7%)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3) 호남권

□ 광주

- 생산 감소(-5.2%), 고용 증가(1.8%), 수출 감소(-8.8%)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4.0%)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 장비(-17.4%), 자동차 및 트레일러(-4.7%) 등은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감소
 - 제조업(-1.9%)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57.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1%)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호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 산	광 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	9.7	11.8	23.9	18.9	11.2	13.1	7.2	13.3	-4.7
		전기장비	15.7	-7.6	-22.2	-23.5	-24.7	-1.9	3.4	6.7	-13.1	-17.4
		기계 및 장비	10.6	1.0	-5.4	3.7	-6.5	0.6	0.3	17.7	-12.9	4.0
	전 북	식료품	-1.2	2.9	-3.0	-6.5	-6.8	-6.8	-9.6	-9.8	-0.5	-3.1
		화학제품 외	-1.5	-4.3	-4.5	-3.7	-12.4	-6.9	-11.3	-4.3	-4.6	-7.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7.2	14.2	16.1	2.9	12.9	-6.7	-3.1	-2.6	-13.9	-16.4
	전 남	화학제품 외	11.5	-6.5	-21.5	-8.6	-5.0	-3.4	-9.0	-4.1	3.6	7.6
		1차 금속 제조업	7.6	-2.9	-2.2	-0.4	0.8	-3.1	-4.2	1.7	-6.6	-0.9
		석유정제품	11.1	3.8	3.3	1.8	-1.3	-1.0	-3.2	0.8	-0.7	-0.6
고 용	광 주	농림·어업	12 (-25.0)	15 (25.0)	15 (15.4)	18 (38.5)	18 (12.5)	22 (37.5)	21 (23.5)	22 (46.7)	23 (53.3)	22 (57.1)
		제조업	100 (-6.5)	104 (4.0)	102 (1.0)	100 (-2.9)	100 (-6.5)	104 (-1.0)	103 (-3.7)	105 (1.0)	104 (0.0)	101 (-1.9)
		SOC·서비스	632 (1.1)	631 (-0.2)	639 (1.9)	641 (2.7)	641 (2.4)	647 (2.1)	650 (3.0)	643 (1.3)	648 (2.0)	652 (1.1)
	전 북	농림·어업	169 (-5.6)	172 (1.8)	170 (3.7)	151 (0.0)	151 (-15.6)	175 (-5.9)	175 (-8.4)	176 (-3.8)	174 (-5.4)	174 (-4.9)
		제조업	120 (-2.4)	119 (-0.8)	124 (0.8)	123 (1.7)	123 (8.8)	132 (12.8)	129 (11.2)	133 (13.7)	134 (12.6)	132 (7.3)
		SOC·서비스	663 (5.2)	677 (2.1)	667 (-0.1)	679 (2.6)	679 (-2.0)	695 (1.0)	696 (-0.3)	695 (1.8)	695 (1.9)	692 (2.1)
	전 남	농림·어업	221 (7.8)	234 (5.9)	238 (3.5)	218 (-1.8)	218 (-7.2)	228 (-5.4)	229 (-3.4)	227 (-5.8)	227 (-7.3)	224 (-6.7)
		제조업	97 (-8.5)	99 (2.1)	95 (-3.1)	102 (2.0)	102 (2.0)	102 (3.0)	103 (4.0)	102 (1.0)	102 (5.2)	105 (12.9)
		SOC·서비스	667 (0.8)	678 (1.6)	683 (2.2)	684 (3.8)	684 (-0.6)	694 (2.1)	698 (3.6)	693 (2.1)	691 (0.4)	690 (-0.4)
수 출	광주		16,604 (20.6)	17,946 (8.1)	4,359 (-1.6)	4,426 (5.8)	4,540 (-3.4)	4,717 (0.3)	1,660 (-4.5)	1,561 (0.5)	1,496 (6.0)	1,324 (-8.8)
	전북		7,820 (33.9)	8,223 (5.2)	1,862 (-11.2)	1,883 (-14.4)	1,973 (-8.0)	1,712 (-15.0)	547 (-21.1)	572 (-13.9)	593 (-9.6)	509 (-14.6)
	전남		43,294 (59.8)	49,438 (14.2)	10,879 (-13.3)	9,953 (-17.1)	9,005 (-32.7)	9,832 (-25.3)	2,867 (-36.4)	3,197 (-31.3)	3,768 (-5.8)	4,415 (13.2)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0.6%)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25.4%), 냉장고(-9.1%)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전북

- 생산 감소(-12.3%), 고용 증가(1.4%), 수출 감소(-14.6%)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6.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7.9%), 식료품(-3.1%)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4.9%)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7.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1%)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합성수지(3.5%)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제품(-20.6%), 자동차(-12.3%)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전남

- 생산 증가(2.3%), 고용 소폭 감소(-0.8%), 수출 증가(13.2%)
 - 주요 업종인 1차 금속 제조업(-0.9%), 석유정제품(-0.6%)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7.6%)은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증가
 - 제조업(12.9%)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6.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4%)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철강판(12.2%), 석유제품(9.7%), 합성수지(1.5%)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4) 대경권

□ 대구

- 생산 감소(-4.0%), 고용 증가(2.2%), 수출 감소(-11.3%)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5%)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속가공제품(-7.6%), 기타 기계 및 장비(-3.7%)가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대경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 산	대구	금속가공제품	7.2	-3.2	0.1	2.7	3.2	-5.1	-18.3	2.9	1.6	-7.6
		기계 및 장비	31.1	11.0	14.7	14.0	-5.8	-16.4	-0.5	-23.7	-24.2	-3.7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7	9.0	15.3	11.2	14.8	8.9	10.6	17.4	-0.3	1.5
	경북	전자부품 외	7.3	-7.4	-9.1	-0.9	-18.5	-14.9	-23.0	-12.0	-11.5	-16.4
		1차 금속	1.8	-16.7	-39.1	-13.2	-5.3	7.6	-9.8	-5.2	72.3	84.8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1	16.9	27.4	23.3	16.3	5.1	8.7	7.8	-1.1	-2.1
고 용	대구	농림·어업	15 (-51.6)	10 (-33.3)	10 (-9.1)	8 (0.0)	8 (-33.3)	14 (27.3)	12 (20.0)	15 (50.0)	15 (25.0)	13 (18.2)
		제조업	239 (3.5)	240 (0.4)	240 (2.6)	240 (1.3)	240 (0.4)	243 (-0.4)	240 (-1.6)	242 (-0.8)	246 (0.8)	243 (3.4)
		SOC·서비스	963 (4.3)	978 (1.6)	976 (-0.4)	972 (0.2)	972 (-1.0)	1,008 (2.4)	1,025 (3.9)	1,002 (1.9)	996 (1.4)	1,004 (1.6)
	경북	농림·어업	274 (4.6)	280 (2.2)	293 (8.1)	261 (4.8)	261 (-8.7)	291 (-0.3)	292 (0.7)	290 (-1.0)	291 (-1.0)	298 (-2.9)
		제조업	283 (-3.1)	293 (3.5)	280 (-5.1)	268 (-10.4)	268 (-10.1)	252 (-14.9)	253 (-14.8)	249 (-16.4)	253 (-13.9)	258 (-10.4)
		SOC·서비스	853 (-1.2)	888 (4.1)	891 (3.4)	897 (4.8)	897 (-1.2)	923 (2.9)	921 (2.1)	918 (2.0)	931 (4.7)	930 (3.7)
수 출	대구	7,934 (26.6)	10,642 (34.1)	2,840 (28.1)	2,997 (27.6)	2,995 (12.9)	2,564 (-8.4)	856 (-10.1)	864 (-8.8)	844 (-6.2)	773 (-11.3)	
	경북	44,314 (19.5)	46,888 (5.8)	11,497 (-8.7)	12,002 (-5.2)	11,600 (-1.2)	11,641 (6.0)	3,649 (5.6)	3,998 (4.0)	3,994 (8.4)	3,639 (-5.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농림·어업(18.2%), 제조업(3.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6%)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기구부품(30.4%), 자동차부품(8.5%)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원료(-31.5%)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경북

- 생산 감소(-3.1%), 고용 소폭 감소(-0.5), 수출 감소(-5.4%)
 - 주요 업종인 1차 금속 제조업(84.8%)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6.4%), 자동차 및 트레일러(-2.1%)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은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7%)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10.4%)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
 - 수출 상위 품목인 철강판(58.8%)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원료(-23.0%), 무선통신기기(-8.3%)의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5) 동남권

□ 부산

- 생산 감소(-16.1%), 고용 소폭 증가(0.6%), 수출 감소(-9.4%)
 - 주요 업종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5.0%)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6.7%), 식료품 제조업(-3.9%)의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5%)이 소폭 증가하고, 제조업(-0.4%)은 소폭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상위 수출품인 철강판(7.3%), 원동기 및 펌프(6.2%) 등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51.3%)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울산

- 생산 소폭 감소(-0.6%), 고용 소폭 증가(0.3%), 수출 증가(11.1%)
 - 대표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9%), 자동차 및 트레일러(3.8%)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정제품(-2.6%) 등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소폭 감소
 - 제조업(1.7%)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0%)이 소폭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동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 산	부 산	기계 및 장비	-2.5	4.5	3.3	10.4	-3.2	-3.0	-9.2	0.7	0.0	-6.7
		금속 가공제품	-11.5	2.0	12.5	15.7	5.7	5.8	2.8	4.2	10.1	5.0
		식료품	3.6	-0.8	-8.2	-11.4	-13.5	-8.7	-6.6	-15.4	-3.7	-3.9
	울 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2.7	2.2	10.1	18.4	10.8	5.3	9.1	14.6	-6.0	3.8
		화학제품 외	6.9	-10.5	-16.2	-13.3	-9.6	2.8	-5.8	2.6	13.3	3.9
		석유정제품	-1.5	9.4	0.2	-5.5	-8.4	-10.6	-19.9	-9.6	-1.3	-2.6
	경 남	기계 및 장비	9.9	4.1	8.4	0.5	-5.9	-7.3	-4.4	-11.8	-6.1	-17.2
		기타 운송장비	-12.7	18.6	13.3	8.3	10.1	22.2	21.5	26.9	18.5	23.6
		금속가공제품	-5.7	8.7	18.6	19.1	-1.0	1.5	5.1	4.8	-4.8	-13.0
고 용	부 산	농림·어업	11 (57.1)	19 (72.7)	19 (35.7)	21 (16.7)	21 (5.0)	24 (33.3)	24 (33.3)	24 (26.3)	24 (33.3)	21 (16.7)
		제조업	240 (-5.9)	225 (-6.3)	222 (-1.8)	221 (-2.2)	221 (-3.5)	222 (0.0)	224 (0.9)	221 (-1.3)	220 (0.0)	222 (-0.4)
		SOC·서비스	1,407 (2.1)	1,435 (2.0)	1,451 (2.2)	1,437 (2.5)	1,437 (0.3)	1,460 (0.3)	1,456 (0.4)	1,454 (-0.4)	1,468 (0.7)	1,457 (0.5)
	울 산	농림·어업	6 (-14.3)	6 (0.0)	7 (40.0)	6 (20.0)	6 (0.0)	6 (-14.3)	6 (-14.3)	7 (0.0)	5 (-28.6)	5 (-28.6)
		제조업	163 (0.6)	168 (3.1)	181 (11.7)	178 (13.4)	178 (9.2)	182 (5.8)	182 (7.1)	183 (7.0)	181 (4.0)	180 (1.7)
		SOC·서비스	385 (-1.8)	392 (1.8)	384 (-2.0)	381 (-2.3)	381 (-5.0)	385 (-2.3)	388 (-2.0)	380 (-3.6)	387 (-1.0)	389 (0.0)
	경 남	농림·어업	203 (10.3)	220 (8.4)	214 (2.4)	195 (-0.5)	195 (-16.7)	217 (-8.8)	213 (-10.1)	216 (-9.2)	223 (-6.3)	225 (-3.4)
		제조업	377 (-5.5)	390 (3.4)	395 (4.8)	375 (-4.1)	375 (-4.8)	359 (-5.8)	352 (-6.6)	356 (-7.3)	370 (-2.6)	383 (-0.8)
		SOC·서비스	1,151 (0.5)	1,130 (-1.8)	1,131 (-0.6)	1,144 (1.7)	1,144 (0.5)	1,193 (6.0)	1,213 (6.5)	1,192 (6.5)	1,174 (4.7)	1,174 (4.0)
수 출	부산		14,816 (30.9)	16,192 (9.3)	3,858 (-6.9)	3,732 (-6.7)	3,996 (-5.2)	3,719 (-9.7)	1,128 (-19.9)	1,346 (4.8)	1,245 (-12.6)	1,138 (-9.4)
	울산		74,268 (32.4)	90,154 (21.4)	22,258 (8.9)	21,373 (0.4)	20,734 (-11.2)	21,787 (-6.1)	6,839 (-17.9)	7,337 (-4.1)	7,611 (5.4)	7,740 (11.1)
	경남		39,262 (9.4)	36,429 (-7.2)	9,336 (-5.6)	9,017 (-2.4)	10,790 (25.1)	9,910 (7.3)	3,502 (-13.3)	3,283 (23.9)	3,125 (22.7)	4,322 (47.5)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상위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38.7%), 석유제품(25.8%), 자동차(19.8%)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경남

- 생산 감소(-3.1%), 고용 증가(2.0%), 수출 증가(47.5%)
 - 주요 업종인 기타 운송장비(23.6%)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17.2%), 금속가공제품(-13.0%)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0.8%)이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0%)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요 수출품인 무기류(-28.3%)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2,667.0%),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99.9%)이 대폭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6) 강원·제주권

□ 강원

- 생산 감소(-1.5%), 고용 증가(2.4%), 수출 감소(-1.4%)
 - 대표 업종인 음료 제조업(11.2%)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금속 광물제품(-16.3%), 식료품 제조업(-1.4%) 등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4%)이 소폭 감소했으나, 농림·어업(22.0%), 제조업(9.1%)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농약 및 의약품(84.0%), 농산가공품(30.6%), 전자응용기기(23.8%)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다수 품목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 제주

- 생산 감소(-10.7%), 고용 감소(-1.9%), 수출 증가(38.5%)
 - 주요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11.8%)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음료 제조업(-29.4%), 식료품 제조업(-4.6%)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강원·제주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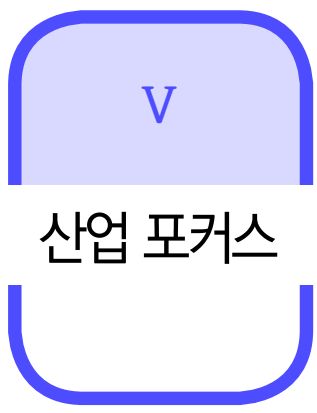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 산	강 원	비금속 광물제품	-1.4	-1.6	-3.1	-5.4	-3.0	-9.2	-8.4	-16.7	-1.9	-16.3
		식료품	1.2	0.8	-7.7	-8.3	-6.2	2.3	1.9	-6.1	12.8	-1.4
		음료	5.0	29.6	17.2	11.2	1.6	3.3	4.7	8.1	-2.6	11.2
	제 주	음료	4.4	0.8	1.0	6.3	-5.1	-10.5	-3.2	-18.5	-9.3	-29.4
		식료품	2.4	8.1	2.0	-4.0	-11.7	-6.8	-9.4	-12.6	2.0	-4.6
		비금속 광물제품	4.0	1.4	-8.6	3.8	20.3	-2.0	-13.5	-11.0	23.5	11.8
고 용	강 원	농림·어업	69 (-15.9)	72 (4.3)	64 (-11.1)	42 (-12.5)	42 (-52.3)	98 (11.4)	97 (7.8)	99 (11.2)	99 (16.5)	100 (22.0)
		제조업	55 (-3.5)	54 (-1.8)	53 (-5.4)	49 (-10.9)	49 (-9.3)	55 (5.8)	56 (7.7)	55 (3.8)	55 (7.8)	60 (9.1)
		SOC·서비스	678 (4.5)	686 (1.2)	699 (2.0)	692 (6.0)	692 (0.4)	711 (1.1)	710 (1.3)	712 (1.7)	710 (0.4)	702 (-0.4)
	제 주	농림·어업	67 (-9.5)	63 (-6.0)	65 (-1.5)	54 (-12.9)	54 (-15.6)	49 (-21.0)	48 (-23.8)	48 (-22.6)	51 (-17.7)	53 (-17.2)
		제조업	14 (16.7)	16 (14.3)	16 (-5.9)	16 (0.0)	16 (0.0)	15 (-6.3)	15 (-11.8)	15 (0.0)	15 (0.0)	13 (-13.3)
		SOC·서비스	302 (3.4)	323 (7.0)	333 (8.8)	322 (2.5)	322 (1.6)	341 (4.6)	340 (5.9)	343 (4.9)	341 (3.6)	342 (1.5)
수 출	강원		2,729 (34.9)	2,750 (0.8)	630 (-12.4)	625 (-15.9)	692 (-6.9)	733 (15.6)	303 (36.5)	202 (7.4)	228 (1.8)	216 (-1.4)
	제주		228 (47.1)	197 (-13.6)	53 (-18.5)	41 (-24.1)	39 (-22.0)	46 (15.0)	18 (50.0)	13 (-7.1)	15 (7.1)	18 (38.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5%)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17.2%)의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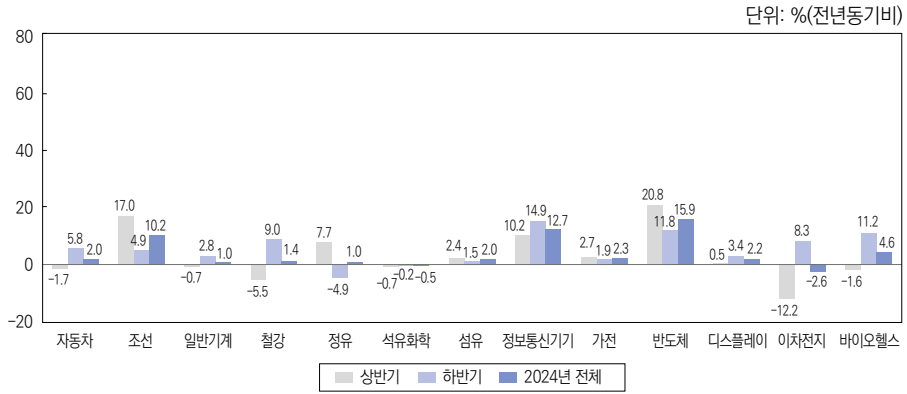
- 지역 수출품 중 기호식품(-3.7%)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83.2%), 어류(5.0%) 등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01 2024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²⁾

- 수출은 글로벌 ICT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 전망
- 2024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세계 경제의 제한적 성장 속에서도 석유화학(-0.5%), 이차전지(-2.6%)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의 수출이 확대되어 2023년(-10.5%)보다 5.2% 증가한 5,04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연구원(2023), 「2024년 경제·산업 전망」 참고.

- (기계산업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확대로 일반기계(1.0%)와 자동차(2.0%)의 수출 증가세 지속, 조선(10.2%)은 고가 선박의 인도 증가로 두 자릿수 성장세 지속이 예상,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2.7% 증가 전망
 - 자동차 수출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 자동차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출시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과 증견업체들의 해외시장 공략 강화와 같은 긍정적 요인 우세로 전년 대비 2.0% 증가 전망
 - 조선 수출은 2021년 고선가에서 수주한 대량의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을 2024년에 인도하면서 전년 대비 10.2% 증가 예상
 - 일반기계 수출은 대중국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미국, 유럽 등)과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사업 활성화에 따른 건설중장비, 산업기계 등 일반기계 완제품 및 부품류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0%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수요 증가, 첨단소재 수출 확대 및 기저효과로 철강(1.4%), 섬유(2.0%) 및 정유(1.0%)의 수출 증가 예상, 석유화학(-0.5%)의 경우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횡보세가 나타나 산업군 전체로는 0.7% 증가 전망
 - 철강 수출은 아세안 내 공급능력 확대 및 중국의 내수 부진 등의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도 등 신흥국 성장, 자동차용 판재류 수출 증가 및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 전망
 - 정유 수출은 글로벌 경쟁 심화에 의한 수출단가 하락 속에서도 석유화학용 중심의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 확대와 비OECD 국가의 견고한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 성장 예상
 - 석유화학 수출은 국내 공급역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대상국 내 수입수요 둔화와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에 비해 0.5% 감소 예상
 - 섬유 수출은 의류 소비 지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첨단소재 수출 비중 증가, 한류로 인한 선호 확대, 전년 실적 부진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2.0% 증가 전망
- (IT산업군) 글로벌 IT 제품 및 혁신의약품 수요의 증가와 기저효과로 반도체(15.9%), 정보통신기기(12.7%), 바이오헬스(4.6%) 등 주요 산업의 수출이 증가, 산업군 전체로는 11.4%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수출 확대를 견인하나 이차전지는 소폭 감소(-2.6%)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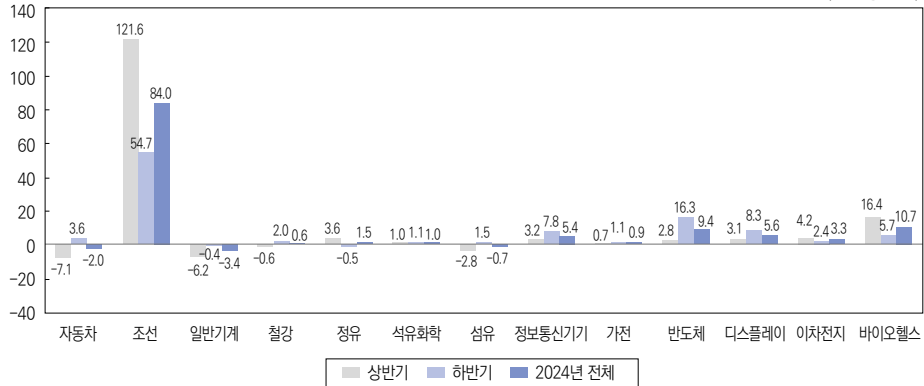
- 정보통신기기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나, SSD,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고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전년 대비 12.7% 증가 전망
 - 챗GPT의 생성형 AI 수요 확산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및 서버 투자가 회복되며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22.5%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전 수출은 주요국 소비심리 회복과 신흥권의 경제성장 호조, 친환경·고효율 제품 및 스마트홈 시장 확대에 따른 제품단가 상승으로 전년비 2.3% 증가 전망
- 반도체 수출은 DDR5를 비롯하여 AI용 서버에 채용되는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와 필수 수요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 발생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지난해 큰 폭의 감소(-25.6%)에서 2024년은 15.9%의 증가로 전환 예상
- 디스플레이 수출은 주요 수요기업의 태블릿 OLED 출시, 패널의 고부가화로 인한 단가 상승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전년 대비 2.2% 증가 전망
- 이차전지 수출은 글로벌 OEM사의 전기차 생산목표 하향 조정에 따른 수요 위축 영향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 전망
 - 미국 및 유럽에서 신·증설된 해외 공장에서의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물량 일부가 현지 생산 물량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바이오헬스는 이연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의 출시와 처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의 위탁생산 능력 증가와 해외 영업망 구축 등의 긍정적 요인이 수출 증가에 기여하며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내수는 ICT 신제품 출시와 수출용 중간재 수요 증가로 IT산업군의 내수 회복 전망, 소재 산업군은 하반기 경제지표 개선으로 소폭 성장 예상

-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섬유는 상반기 감소에서 하반기 증가로 전환, IT산업군은 하반기 내수 증가폭 확대 전망
- (기계산업군) 조선(84%)은 큰 폭 증가세 유지, 일반기계(-3.4%)는 설비투자 증가로 감소세가 둔화되나 자동차(-2.0%)는 누적된 이연 수요 실현 및 구매여건 악화로 감소 전환
 - 자동차 내수는 누적된 이연 수요 실현과 차량 구매여건 등이 악화되는 등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 대비 2.0% 감소한 168만 대 수준에 그칠 전망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 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조선 내수는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대량의 선박 인도로 2년 연속 큰 폭(84%)으로 증가할 전망
- 일반기계 내수는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수요산업 경기 회복 및 설비·건설 투자 확대에 전년(-12.1%) 대비 감소세 완화 전망
- (소재산업군) 하반기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철강(0.6%), 정유(1.5%), 석유화학(1%)에서 내수 성장이 예상, 단,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민간소비 위축세가 성장을 제약
 - 철강 내수는 하반기 설비투자의 소폭 회복과 조선용 수요의 견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둔화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전년 대비 0.6%의 제한적 증가에 그칠 전망
 - 정유 내수는 가정용 및 산업용 석유제품 수요의 감소추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 신증설 설비 운영 및 기존 설비의 가동률 상향조정에 따른 나프타 및 LPG 수요 확대에 전년 대비 1.5% 증가 전망
 - 석유화학 내수는 민간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주요 전방산업의 경기가 소폭 개선되며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평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 섬유산업 내수는 전년 상반기 높은 실적에 따른 역기지효과와 구매력 감소에 따른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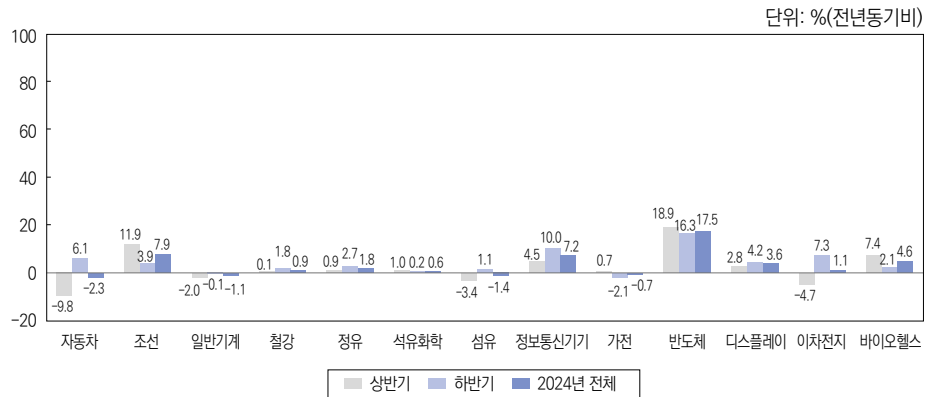
부진이 내수 둔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 대비 0.7% 감소 전망

- (IT산업군) 반도체(9.4%), 정보통신기기(5.4%)의 내수가 회복되고 바이오헬스(10.7%)의 고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이차전지(3.3%)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전년(68.8%)에 비해 소폭의 증가율 기록 전망
 - 정보통신기기 내수는 경기 둔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출시 예정인 국산·외산 스마트폰 및 노트북PC 신제품 교체수요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5.4% 증가 예상
 - 가전 내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내수 감소세 완화, 고효율 스마트 제품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0.9% 증가 전망
 - 반도체 내수는 주요 반도체 기업의 감산 효과에 따른 반도체 재고 안정세와 최근 부진세였던 주요 시장인 SSD 등 컴퓨터 부분품의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10.6%)의 감소세에서 증가(9.4%)로 전환
 - 디스플레이 내수는 국내 LCD 감산이 지속되는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패널 기업의 OLED 설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소재 부품 수요 확대에 전년 대비 5.6% 증가 전망
 - 이차전지 내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전년(68.8%)에 비해 소폭의 증가율(3.3%) 기록 전망
 - 바이오헬스 내수는 항암 치료 관련 의약품·의료기기, 방역용품 수요 증가로 2023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에도 전년 대비 10% 내외 증가 전망

□ 생산은 수출과 내수의 회복으로 IT산업군의 생산 확대 기대, 소재산업군은 제한적 증가, 기계산업군은 소폭 감소 예상

- (기계산업군)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자동차(-2.3%)는 감소 전망, 일반기계(-1.1%) 생산은 국내 수요 회복으로 감소폭 둔화, 조선(7.9%)은 수주잔량 물량 인도에 따라 증가 전망
 - 자동차 생산은 중견업체들의 가동률 향상에 경기 둔화에 따른 차량 수요 감소, 전년 실적 호조에 따른 역기저효과 및 해외 생산 확대에 전년 대비 2.3% 감소한 403만 대를 기록할 전망
 - 조선은 2024년 인도 예정인 물량이 1,399만 CGT(수주 잔량 기준)이나, 선표 조정·인도 연기에 따라 생산이 전년 대비 7.9% 증가한 998만 CGT 수준에 그칠 전망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 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일반기계 생산은 수출이 완만한 증가세(1.0%)를 유지하고, 내수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6.8%) 대비 감소폭이 축소된 -1.1% 증가율 전망
- (소재산업군) 수요 여건 개선과 가동률 정상화로 철강(0.9%), 정유(1.8%), 석유화학(0.6%)에서 소폭 증가 예상, 섬유(-1.4%)는 수요 부진 및 국내 생산기반 약화로 감소 전망
 - 철강 생산은 2023년 일부 생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났던 아연도강판 및 STS열연 생산의 소폭 증가와 상반기 건설수요 개선에 따른 봉형강류 생산 소폭 확대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7,072만 3,000톤 기록 전망
 - 정유는 수출 및 내수 동반 증가와 글로벌 정제마진 호조세 지속에 따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생산량이 회복되며 전년 대비 1.8% 증가 전망
 - 석유화학은 내수와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생산시설 가동률 상향 조정으로 생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겠으나 재고 처리 문제 등으로 증가폭은 0.6%로 제한될 전망
 - 섬유 생산은 첨단소재 생산 및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 부진 및 국내 생산기반 약화로 1.4% 감소 전망
- (IT신산업군) 국내외 IT 수요 회복으로 정보통신기기(7.2%), 반도체(17.5%), 디스플레이(3.6%), 바이오헬스(4.6%)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나 해외 생산 확대에 따라 가전(-0.7%)은 감소하고 수출용 배터리 생산 감소로 이차전지(1.1%)는 소폭 증가 기록 예상

-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수출과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7.2% 증가로 전환 전망, 국내업체들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 주요 제품의 해외 생산 및 중국 위탁생산 확대는 국내 생산에 부정적 요인
- 가전 생산은 수출·내수의 증가 전환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유인이 증가하고 국내 증권 그룹(대유위니아)의 생활가전 계열사 부진에 따라 0.7% 감소 전망
- 반도체 생산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HBM 등 첨단제품 투자 확대에 따라 전년(-27.0%)의 감소에서 큰 폭 증가(17.5%)로 전환 예상
- 디스플레이 생산은 LCD 감소의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대형 OLED 양산 확대 및 OLED 적용 제품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로 3.6% 증가 전망
- 이차전지 생산은 원통형 배터리 공장의 신규 가동으로 하반기에는 증가할 전망이나 상반기 수출 감소 영향으로 연간으로는 1.1% 소폭 증가 예상
- 바이오헬스 생산은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되고 내수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4.6% 증가 전망이나 국내 약가 조정 결과에 따른 생산 위축 가능성 존재
 -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개정안이 2024년 적용될 예정, 제품단가 하락기조가 강화되면 R&D 위축 및 생산 유인이 감소

이재윤 |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위원